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

- 규장각 자료의 書誌비교를 중심으로 -

金 伯 哲**

1. 머리말
2. 全國地理誌의 전통
3. 고종대 邑誌편찬의 흐름
4. 光武 3年(1899) 邑誌의 道別 복원
5. 맺음말

초록: 고종연간은 단일 왕대로 전국지리지 편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는 집권세력의 교체와 개혁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지방통치제도의 변화시기마다 고스란히 읍지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개별 책자로 존재하는 읍지를 일정하게 분류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八道 읍지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며, 부분적인 자료만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종대 전체 읍지편찬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지리지 자료의 연대분류를 시도해보았다. 첫째,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배경으로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해동여지통재』등에 대한 개괄적인 성격을 검토하였다. 둘째, 고종연간 편찬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흥선대원집권기, 고종친정기, 대한제국기, 통감정치기 등으로 구분해보았다. 셋째, 광무 3년(1899) 읍지를 道別로 복원하여 서지사항의 특징을 추출해보았다. 이러한 기초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읍지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세밀한 분류도 가능할 것이다.

핵심어: 全國地理誌, 光武 3年 邑誌, 高宗, 興宣大院君, 大韓帝國

---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 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2).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www.kci.go.kr

1. 머리말

地理志는 지역의 각종 정보를 집대성하는 성격 때문에 지리, 경제, 인물, 행정, 군사, 국문,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1] 이러한 자료 성격으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특정 항목만이 주목받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지리지가 포괄하고 있는 분야가 방대하여 일괄적으로 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별 지리지의 성격을 검토하거나,[2] 조선시대 읍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괄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다.[3] 아울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읍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書誌(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해제(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속집), 영인(규장각자료총서), DB구축(읍지류・지리지

1) 〈표 1〉 지리지 연구분야

구분	지리	경제	인물	행정	군사	국문	음악	기타
논문수	40	12	11	3	2	4	1	4

- 참고문헌 수록 논문분류 기준. 단, 연구자 전공보다 논문 주제만으로 구분.

2) 정두희, 1976「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Ⅰ)・(Ⅱ)」『역사학보』 69・70, 역사학회 ; 이무성, 1982「韓國의 官撰地理志」,『규장각』 6, 서울대학교 규장각 ; 배우성, 1996「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한국학보』 22-4, 일지사 ; 정의성, 1996『동국여지승람의 서지적 연구: 초고본부터 신증본까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 김경수, 2004「『寧城誌』의 편찬과 그 성격」,『역사와 담론』 37, 호서사학회 ; 변주승, 2006「『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김기혁, 2007「지역문화연구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정신문화연구』 30-3,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대영, 2011「1899년 전국읍지상송령과 읍지편찬 연구」『서지학보』 38, 한국서지학회 ; 김태웅, 2013「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 奎章閣 所藏 邑誌를 중심으로」『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양윤정, 2013「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양진석, 2013「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적」『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대영, 2015「英祖연간 '여지도서'의 제작과정과 지도학적 의의」,『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3) 김전배, 1974「조선왕조의 읍지연구」『한국비블리아』 2, 한국비블리아학회 (『문화재』9, 국립문화재연구소, 1975 재수록): 양보경, 1987『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www.kci.go.kr

·한국학자료센터) 등을 거쳐서 수차례에 걸쳐 읍지의 판본 검토가 이루어져 점차 상세한 정보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4)]

한편, 고종연간은 단일 왕대로 전국지리지 편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집권세력의 교체와 개혁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지방통치제도의 변화시기마다 고스란히 읍지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개별 책자로 존재하는 읍지를 일정하게 분류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체로 팔도 읍지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고 부분적인 자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道誌 이상 합철되어 있거나 양식의 통일성이 높은 경우만이 주목받았다.[5)] 반면에 낱개로 흩어져있는 각 읍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6)] 따라서 고종대 전체 읍지편찬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명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종대 이전 전국단위로 읍지가 편찬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리지 자료를 대상으로 고종연간 전체 읍지편찬 사업의 흐름을 재조명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종대 읍지 중 낱개로 분산되어있는 광무 3년(1899) 읍지를 추출하여 도별로 복원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기초적인 서지사항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향후 심화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리지 서지·해제·원문 등은 다음 참조. 도서관 편,「지리지류」『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 상,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 1115-1165면; 규장각 편,『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3』,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144-304면; 규장각 편,『한국본도서해제속집: 사부4』,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90-244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읍지류"·"지리지"(http://kyujanggak.snu.ac.kr ※이하 "규장각 홈페이지" 약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이하 "지리지 종합정보"로 약칭).

5) 기존에는 고종 8년(1871), 고종 32년(1895), 광무 3년(1899) 등 3종의 읍지가 주목받았다. 양보경, 앞의 논문, 114-117면; 정대영, 앞의 논문, 82-90면; 김태웅, 앞의 논문, 115-123면.

6) 고종 5년(1868)과 고종 11년(1874)을 단편적으로 소개한 연구도 있다. 김전배, 앞의 논문, 230면.

www.kci.go.kr

2. 全國地理誌의 전통

1) 現傳 전국지리지(5종)

우선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고종대 以前 판본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現傳하는 官撰 전국지리지는 멀리 『三國史記』「地理志」(고려 인종23, 1145) 및 『高麗史』「地理志」(문종1, 1451)에서부터 조선시대 『世宗實錄』「地理志」(단종2, 1454), 『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25, 1530), 『輿地圖書』(영조33-41, 1757-176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가 남아있다.[7] 5종의 전국지리지는 단순히 전대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후대의 읍지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각 지리지의 특성과 여타자료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서 편찬과 지리지 간행의 관련성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단일 시대를 정리하여 삼국~고려시대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연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조선왕조는 '고조선'에서 국호를 빌려왔으므로, 삼국이전 고조선의 역사부터 서술하여 신왕조의 정통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8]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국사략』이나 『삼국사절요』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상고사(고조선 이후) 부분이 추가되었다. 더욱이 『고려사』 편찬시 배제되었던 원고를 재편집하여 만든 『고려사절요』와 합본하고 사평까지 추가하여, 성종대 최초의 한국 通史인 『東國通鑑』(성종15, 1484)이 탄생하였다.[9]

한편 『동국통감』은 『東國輿地勝覽』(성종11, 1481)과 한쌍이 되므로, 역사-지리의 집대성사업의 완결을 의미하였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에는 '建治沿革' 항목이

---

7) 단, 김전배는 영조대 『東國文獻備考』「輿地考」까지 廣義의 지리지 범위로 다루었으나, 같은 왕대 『輿地圖書』가 별도로 편찬되어 그 목적이 서로 달랐으므로 여기서는 狹義의 지리지로 한정하였다. 이외에도 私撰인 李重煥의 『擇里志』(영조27, 1751), 金正浩의 『大東地志』(철종12-고종3, 1861-1866) 등이 존재한다. 김전배, 앞의 논문, 222-226면; 이상태, 1995 「지리지의 편찬」『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157-171면; 배우성, 앞의 논문, 148-160면.

8) 한영우, 1981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5-33면, 59-77면; 정구복, 2002 『한국중세사학사(Ⅱ)』, 경인문화사, 177-188면, 242면.

9) 體裁는 다음 참조. 정구복, 위의 책, 223-374면.

www.kci.go.kr

첫번째로 설정되었는데, 해당 고을의 역사와 지리를 약술하였다. 곧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정보가 이때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양자와 『동국여지승람』의 계승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20세기까지도 상당수 읍지가 書名이나 項目에서 "-輿地勝覽" 계승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통의 연원 역시 살필 수 있다.[10)]

둘째, 지방제도의 개편과 지리지 편찬이다. 『고려사』와 『세종실록』의 「地理志」는 저본의 편찬시기가 모두 세종대로 유사하여, 실제로 편찬자가 거의 같은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는 여말선초 지방제도 개혁의 이전과 이후 성과를 判然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11)] 이는 고종대 지방제도 개편과 전국지리지 편찬이 맞물려 진행된 것과 유사하다.

셋째, 지리지 편찬의 목적 변화이다.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와 조선후기 『여지도서』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는 지리・식생・문화 정보를 주로 서술한 반면에,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행정・군사・부세 정보까지 증보하였다. 전자는 문화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고, 후자는 통치 정보가 주력을 이룬 것이다. 그럼에도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본문의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서두와 말미에 行을 내려서 18세기 대동・균역의 개혁성과 및 鎭管체제의 복구 과정을 증보의 형태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12)] 19세기 읍지에는 전자와 후자의 항목이 『여지도서』와 같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고종연간 읍지편찬시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13)]

그런데 양자의 성격 차이는 기실 18세기 세종시대 재평가와 연동된다.[14)] 영조대

---

10) 1879년 『慶尙右道宜寧縣輿地勝覽』〈想白古 915.15-Eu47〉; 1891년 『高陽郡輿地勝覽』〈奎 10709〉・〈古 915.12-G749g〉・〈古 915.12-G749y〉; 1931년 『靈光續修輿地勝覽』〈一簑古 915.142-G155y〉

11) 김백철, 2016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415-418면, 510-521면.

12) 이미 숙종대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증보 시도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우성, 앞의 논문, 144-148면.

13) 양보경, 앞의 논문, 113-118면.

www.kci.go.kr

『여지도서』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증보한 군사 및 부세 등 상당수의 항목은 본래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편성되었던 내용이다. 세종대는 국가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고, 성종대는 이미 확립된 국가의 토대 위에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영조대는 통치정보를 중심으로 『여지도서』를 편찬하였으며, 부족한 문화면은 『東國文獻備考』(영조46, 1770)로 보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종연간에는 영조대 문물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舊本新參의 개혁을 추진하였다.[1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종대 수차례에 걸쳐 읍지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增補文獻備考』(고종40-45, 1903-1908)까지 편찬하여 18세기 전통을 복합적으로 계승하였다.

2) 전국단위 사업의 片鱗(4종)

이밖에도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편린이 일부 남아있어 전국 단위의 편찬사례가 확인된다. 첫째, 세종대 『新撰八道地理志』(세종6-14, 1424-1432, 不傳)이다.[16] 『慶尙道地理志』(세종7, 1425)〈奎 10007〉는 『신찬팔도지리지』의 일부로 보인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慶尙道續撰地理志』(예종1, 1469)로 증보되었다.[17] 이 연장선상에서 세조 원년(1455) 梁誠之에게 지리지 편찬을 명하였고, 성종초반에 작업이 완료되었다.[18] 이는 성종대 『東國輿地勝覽』 최종본에 반영되었다.[19]

---

14) 예컨대 『속대전』의 일부는 세종대 『속육전』에 실려있던 조문이 재수록되기도 했는데, 영조대 세종 재평가운동이 잊혀졌던 15세기 초 典章制度 전반을 부활시킨 듯하다. 김백철, 2014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태학사, 304면; 김백철, 2016 앞의 책, 221면.

15) 김백철, 2014 앞의 책, 309-343면, 356-358면.

16) 『世宗實錄』 卷55, 世宗 14年 正月 己卯(19日).

17) 이상태, 앞의 논문, 157-166면.

18) 『世祖實錄』 卷2, 世祖 元年 8月 乙卯(12日); 『成宗實錄』 卷138, 成宗 13年 2月 壬子(13日).

19) 梁誠之의 상소에는 『지리지』와 『여지승람』을 병기하고 있어서 별개의 작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최종본에서 합본된 듯하다. 『成宗實錄』 卷138, 成宗 13年 2月 壬子(13日); 이상태, 앞의 논문, 166면.

www.kci.go.kr

둘째, 정조대 邑誌 편찬사업이다. 假稱『海東輿地通載』(정조13-23?, 1788~1799, 不傳)로 불렸으나 완성되지는 못하였다.[20] 그런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영조 후반~순조초반 개별 읍지에는 새로운 '場市' 항목을 사용하여 형식이 상당히 유사하다.[21] 대체로『여지도서』이후의 증보사항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낱개로 남아있는 개별읍지는『弘齋全書』에서 제시한『해동여지통재』의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22] 하지만 별도 시기로 구분이 가능한 읍지가 다량으로 존재하므로,[23]『해동여지통재』사업의 배경 혹은 그 유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읍지를 汎海東輿地通載類 계열로 분류해볼 수 있다.[24]

셋째, 순조대 道誌 편찬사업이다. 대개 순조후반에 편찬된『關東誌』(순조29-31, 1829-1831)〈국립중앙도서관 古 2780-1〉,[25]『慶尙道邑誌』(순조32, 1832)〈奎 666〉[26]

---

20) 배우성, 앞의 논문, 160-171면; 양진석, 앞의 논문, 54-67면.

21) 영조 32년『金馬志』〈奎 12716〉, 영조 33년『結城邑誌』〈奎 17387〉, 영조 43년『義興邑誌』〈奎 10817〉, 영조 44년『基川志』〈古 4799-5〉, 정조 9년『慶山縣邑誌』〈奎 17440〉, 정조 10년『懷德邑誌』〈奎 17375〉,『順天府邑誌』〈奎 17434〉, 정조 12년『玉果縣誌』〈一簑古 915.142-Og1〉, 정조 13년『益山郡邑誌』〈奎 17400〉,『南平邑誌』〈奎 17420〉,『潭陽府邑誌』〈奎 17423〉,『高敞縣邑誌』〈奎 17425〉,『務安縣邑誌』〈奎 17426〉,『同福縣邑誌』〈奎 17432〉,『泰仁縣邑誌』〈想白古 915.14-T122〉, 정조 15년『海南邑誌』〈想白古 915.14-H118〉, 정조 16년『全羅道全州益山礪山靈巖邑誌』〈想白古 915.14-J459〉,『興德縣邑誌』〈奎 17409〉, 정조 17년『谷城邑誌』〈奎 17431〉,『濟州大靜旌義邑誌』〈奎 17436〉,『濟州邑誌』〈想白古 915.149-J389〉, 정조 19년『光陽邑誌』〈奎 17435〉, 정조 22년『光州牧誌』〈奎 10800〉, 정조 24년『鳳城誌』〈奎 7912〉, 순조 15년『羅州牧邑誌』〈奎 17422〉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고종대까지도 장시는 표준 항목으로 자리하였다. 이상 연대 추정은 "지리지 종합정보"를 기준으로 함(2016.10.30. 검색).

22) 양진석, 앞의 논문, 54-67면.

23) 이기봉, 2003「광양읍지〈奎 17435〉」『전라도읍지』 2, 서울대학교 규장각, 21-22면; 이기봉, 2003「금산군읍지〈奎 17417〉」『전라도읍지』 4, 서울대학교 규장각, 37-38면; 이기봉, 2003「나주목읍지〈奎 17422〉」『전라도읍지』 5, 서울대학교 규장각, 44-15면; 이기봉, 2003「남원읍지〈奎 17401〉」『전라도읍지』 6, 서울대학교 규장각, 58-59면.

24) 道誌 규모로 남아있는 경우도 확인되는데,『관북읍지』(영조34?, 1758)〈想白古915.19-G995〉는『여지도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北關誌』(정조8?, 1784)〈奎 4790〉 및『북관지』(정조8, 1784?)〈古 4790-18〉는『여지도서』 이후의 증보작업으로 추정된다.

25) 양보경, 1997「강원도읍지 해설」『강원도읍지』 1, 서울대학교 규장각, 5면; 유재춘, 2011

www.kci.go.kr

등이 남아있다.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순조 27년-순조 30년(1827-1830)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기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지리지를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대 이후 증보된 항목을 계승하되 '林藪' 등 새로운 항목도 일부 수록하였다.[27] 이는 향후 여러 읍지에 파급되어 광무연간까지 표준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련의 흐름은 헌종대 이후 표준양식 출현의 배경이 되었다.

넷째, 헌종대 道誌 편찬사업이다.『京畿誌』(헌종8, 1842)〈奎 12178〉 등이 남아있다. 18세기 형식과 비교하면 19세기에 새로운 표준서식을 도입하여 일부 조정한 점이 특색이다.[28] 대체로 '撥站'/'撥所, '戰陣遺址'/'戰陣基址', '名賢墓所', '魚鹽', '祈雨祭壇', '店幕', '嶺阨險夷'/'嶺阨'/'險夷', '名山大川' 등이 신항목에 해당한다. 도지의 새로운 서식은 19세기 개별읍지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고종연간 1871년 및 1895년 道誌에는 영·정조대 항목뿐 아니라, 헌종대 표준항목도 함께 채택되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3. 고종대 邑誌편찬의 흐름

1) 興宣大院君 집권기 [同治 10-11年, 1871-1872]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 외세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관방강화책이다. 이미 丙寅洋擾(고종3, 1866) 직후부터 砲軍을 증설하여 關防을 강화해나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 辛未洋擾(고종8, 1871)마저 발생하였다.[29] 洋擾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대를 위한 砲粮米가 증설되었다.[30]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道誌에는 沁都(江華 鎭撫營) 砲糧米가 다수 확인

「『關東誌』의 편찬 과정과 사료적 특성」, 『강원사학』 25, 강원사학회, 214면.

26) 김선경, 「경상도읍지〈奎 666〉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27) 김선경, 위의 글.

28) 김백철, 「경기지〈奎 12178〉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29) 육군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9: 근·현대 Ⅰ』, 육군본부/경인문화사, 42-98면.

www.kci.go.kr

되는데,[31] 關防정책 차원에서 전국 군현의 지리정보의 수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부세개혁이다. 19세기 세도정권기 발생한 삼정문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창제와 호포제가 실시되었다.[32] 그동안 1871년 도지는 군사적 성격으로, 1895년 도지는 재정적 성격으로 구분해왔다.[33] 그런데 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읍의 '糶糴' 항목에는 甲子(고종1, 1864) 合錄米, 丙寅(고종3, 1866) 別備米, 丁卯(고종4, 1867) 別備米 등 일관된 표기가 등장한다.[34] 곧 사창제 개혁을 반영한 내용이다.[35] 아울러 을축(고종2, 1865) "均布"→병인(고종3, 1866) "洞布"→무진(고종5, 1868) "疤"→경오(고종7, 1870) "戶布" 등도 확인된다.[36] 이것은 興宣大院君의 戶布制 개혁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사료에 해당한다. 실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이듬해인 "同治七年"(고종5, 1868)을 명기하여 작성된 각도의 환곡, 전결, 대동 등 稅制에 대한 실태 조사보고서도 남아있다.[37] 따라서 道誌 성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30) 제임스 B. 팔레(이훈상 역), 1993『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신원문화사, 183-184면; 최학삼, 2016「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무가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16-2, 한국조세연구포럼, 53-54면.

31)『湖西邑誌』 第16册, (丹陽郡邑誌), 事例〈奎 12176〉;『京畿邑誌』 第6册, 同治十年十月日 仁川府邑誌, 民摠大槪〈奎 12177〉;『湖南邑誌』第2册, 昌平縣, 田稅〈奎 12175〉;『嶺南邑誌』第3册, 同治十年九月日 慶尙道東萊府邑誌事例大槪, 田賦;『嶺南邑誌』 第13册, 同治十年九月日 慶尙道多大鎭誌. 以上〈奎 12173〉.

32) 고석규, 1998『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25-236면; 제임스 B. 팔레, 앞의 책, 185-191면, 264-269면.

33) 양보경, 앞의 논문, 114면.

34)『湖西邑誌』 第10册, (淸州牧邑誌), 還穀;『湖西邑誌』 第10册, 洪州牧邑誌, 倉庫;『湖西邑誌』 第12册, 淸風府邑誌, 糶糴;『湖西邑誌』 第13册, 馬梁鎭誌與事例, 糶糴;『湖西邑誌』 第13册, 鴻山縣誌, 糶糴;『湖西邑誌』 第13册, 扶餘縣邑誌, 還米;『湖西邑誌』 第13册, (定山縣邑誌), 倉庫;『湖西邑誌』 第13册, 石城邑誌, 還摠;『湖西邑誌』 第13册, (大興郡邑誌), 糶糴;『湖西邑誌』第13册, (沔川郡邑誌), 沔川郡邑事例, 糶糴. 以上〈奎 12176〉

35)『備邊司謄錄』, 乙亥(고종12) 正月 10日.『高宗實錄』卷4, 高宗 4年 6月 乙酉(3日).

36)『湖西邑誌』 第10册, 洪州牧邑誌, 事例〈奎 12176〉.

37)【환곡】『江原道各衙門還米成册』(同治7)〈奎 16228〉;『江原道作還成册』(同治7)〈奎 16112〉;『江原道合錄穀成册』(同治7)〈奎 16187〉;『咸鏡道還穀成册』(同治7)〈奎 16147〉;『平安道別餉穀成册』(同治7)〈奎 16168〉;『平安監營別餉穀成册』(同治7)〈奎 16169〉;【전결】『全羅左道順天府田結戊辰改量新舊大槪狀成册』(同治7)〈奎 16413〉;【대동】『忠淸道各邑詳定磨鍊成

www.kci.go.kr

필요하다.

1871년 도지는 대개 **"同治十年"**(고종8, 1871) 내지 **"同治十一年"**(고종9, 1872)의 연대표기가 보인다.[38] 1871년 『湖西邑誌』〈奎 12176〉, 『關東邑誌』〈奎 12171〉, 『關東邑誌』〈奎 12172〉, 『嶺南邑誌』〈奎 12173〉, 『湖南邑誌』〈奎 12175〉, 『京畿邑誌』〈奎 12177〉, 『關西邑誌』〈奎 12168〉, 1872년 『關北邑誌』〈奎 10995〉,* 『北關邑誌』〈奎 12170〉,* 『(關北)邑誌』〈奎 667〉 등이 해당한다.[39] 〈표 2〉와 같이 『대전회통』과 비교해보면 불과 12읍정도만 누락되어 거의 대부분의 군현이 수록되었다. 이는 『輿地圖書』 이래 온전한 전국지리지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40] 특히, 이듬해 완성된 『1872년 地方地圖』 역시 1871년 道誌에 수록된 채색지도와 연속된 작업으로 추진되었다.[41]

冊』(同治7; 表題기준)〈奎 16820〉; 『忠淸道各邑詳定磨鍊成冊』(同治7; 表題기준)〈奎 16821〉. 한편, 김전배가 간단히 소개한 고종 5년(1868) 읍지 편찬은 이러한 종류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김전배, 앞의 논문, 1974, 230면.

38) 양보경, 앞의 논문, 114-115면; 정대영, 앞의 논문, 82-83면; 규장각 편, 1993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3』, 「경기읍지〈규 12177〉」·「관북읍지〈규 10995〉」·「관서읍지〈규 12168〉」·「영남읍지 〈규 12173〉」·「해서읍지〈규 12171〉」·「호남읍지〈규 12175〉」·「호서읍지〈규 12176〉」, 서울대학교 규장각, 145면, 157면, 158면, 229면, 294면, 298면, 299면); 김백철, 「호남읍지〈奎 12175〉 상세정보」·「영남읍지〈奎 12173〉 상세정보」·「호서읍지〈奎 12176〉 상세정보」·「경기읍지 〈奎 12177〉 상세정보」; 김지영, 「관동읍지〈奎 12172〉 상세정보」(이상 "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39) *는 "규장각 홈페이지"(2016.10.30. 검색)의 연대비정을 수정한 경우이다.

40) 『여지도서』 이후 道誌형태로 『關北邑誌』(영조34?, 1758)〈想白古 915.19-G995〉, 『北關誌』(정조8?, 1784)〈奎 4790〉, 『北關誌』(정조8?, 1784)〈古 4790-18〉, 『關東誌』(순조29-31, 1829-18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 2780-1〉, 『慶尙道邑誌』(순조32, 1832)〈奎 666〉, 『京畿誌』(헌종8, 1842)〈奎 12178〉 등이 남아있으나, 전국이 온전히 보존된 경우는 1871년 읍지가 처음이다.

41) 다만, 실제 지도의 일치도는 각읍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다. 규장각 편, 1996-2002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경기·충청·경상·강원·함경·황해·평안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 「읍지 속의 지도모음」("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www.kci.go.kr

〈표 2〉『대전회통』지방제도 對比 1871년 道誌

1865년『대전회통』체제		1871년 道誌	비고
京畿	驪州, 坡州, 楊州, 富平, 南陽, 利川, 仁川, 長湍, 通津, 喬桐, 竹山, 楊根,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金浦, 交河, 加平, 永平, 龍仁, 振威, 陽川, 始興, 砥平, 抱川, 積城, 果川, 漣川, 陰竹, 陽城, 陽智	【京畿邑誌】 喬桐, 金浦, 陽川, 富平, 安山, 加平, 漣川, 朔寧, 麻田, 積城, 坡州, 高陽, 長湍, 豊德*, 交河, 楊州, 抱川, 永平, 安城, 龍仁, 驪州, 陽智, 砥平, 利川, 通津, 楊根, 始興, 仁川, 果川, 陽城, 南陽, 竹山, 振威, 陰竹	完帙 /豊德 復舊
忠清道	忠州, 清州, 公州, 洪州, 清風, 林川, 丹陽, 泰安, 韓山, 舒川, 沔川, 天安, 瑞山, 槐山, 沃川, 溫陽, 大興, 報恩, 德山, 文義, 鴻山, 堤川, 平澤, 稷山, 懷仁, 定山, 青陽, 延豊, 陰城, 清安, 恩津, 懷德, 鎭岑, 連山, 魯城, 扶餘, 石城, 庇仁, 藍浦, 鎭川, 結城, 保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永春, 永同, 黃澗, 青山, 牙山	【湖西邑誌】 公州, 牙山, 忠州, 林川, 文義, 堤川, 永春, 延豊, 新昌 唐津, 禮山, 結城, 藍浦, 瑞山, 沃川, 永同, 黃澗, 青山, 懷仁, 槐山, 報恩, 德山, 陰城, 清安, 鎭川, 木川, 清州, 洪州, 海美, 稷山, 清風, 天安, 庇仁, 鴻山, 扶餘, 青陽, 定山, 石城, 泰安, 溫陽, 韓山, 魯城, 恩津, 懷德, 連山, 保寧, 鎭岑, 丹陽, 舒川, 大興, 沔川, 燕岐, 全義, 平澤	完帙
慶尙道	慶州, 安東, 昌原, 尙州, 晉州, 星州, 大丘, 金海, 寧海, 密陽, 善山, 青松, 蔚山, 東萊, 巨濟, 居昌, 河東, 仁同, 順興, 漆谷, 陜川, 草溪, 清道, 永川, 醴泉, 榮川, 興海, 梁山, 咸安, 金山, 豐基, 昆陽, 咸陽, 盈德, 慶山, 固城, 義城, 南海, 開寧, 三嘉, 宜寧, 河陽, 龍宮, 奉化, 清河, 彦陽, 漆原, 鎭海, 眞寶, 聞慶, 咸昌, 知禮, 安義, 高靈, 玄風, 山淸, 丹城, 軍威, 比安, 義興, 新寧, 禮安, 延日, 長鬐, 靈山, 昌寧, 泗川, 機張, 熊川, 慈仁, 英陽	【嶺南邑誌】 慶州, 安東, 陜川, 金山, 固城, 南海, 開寧, 密陽, 仁同, 清松, 東萊, 柒谷, 宜寧, 鎭海, 咸昌, 知禮, 高靈, 山清, 大邱, 蔚山, 寧海, 盈德, 義城, 慶山, 河陽, 龍宮, 奉化, 丹城, 泗川, 三嘉, 熊川, 漆原, 聞慶, 安義, 昌寧, 機張, 比安, 慈仁, 英陽, 新寧, 禮安, 迎日, 長鬐, 靈山, 草溪, 咸陽, 咸安, 昆陽, 晉州, 清河, 彦陽, 眞寶, 玄風, 軍威, 義興, 梁山, 醴泉, 榮川, 興海, 豊基, 梁山, 順興, 清道, 永川	缺 8邑
全羅道	全州, 羅州, 濟州, 光州, 綾州, 南原, 長興, 順天, 潭陽, 礪山, 長城, 茂朱, 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光, 珍島, 樂安, 淳昌, 錦山, 珍山, 金堤, 大靜, 旌義, 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平,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求禮, 谷城, 雲峯, 任實, 長水, 鎭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	【湖南邑誌】 羅州, 長城, 井邑, 玉果, 昌平, 同福, 和順, 綾州, 南平, 康津, 南原, 任實, 求禮, 光陽, 谷城, 全州, 錦山, 珍山, 高山, 礪山, 益山, 龍安, 興德, 高敞, 靈光, 茂長, 扶安, 古阜, 光州, 潭陽, 淳昌, 順天, 樂安, 興陽, 長興, 寶城, 茂朱, 鎭安, 龍潭, 長水, 雲峰, 咸平, 務安, 靈岩, 海南, 珍島, 臨陂, 沃溝, 萬頃, 金堤, 金溝, 泰仁	缺 4邑
黃海道	黃州, 海州, 延安, 平山, 瑞興, 豊川, 谷山, 瓮津, 鳳山, 安岳, 載寧, 遂安, 白川, 信川, 金川, 新溪, 文化, 長連, 松禾, 康翎, 殷栗, 免山, 長淵	【海西邑誌】 白川, 延安, 平山, 金川, 新溪, 兎山, 瑞興, 載寧, 鳳山, 豊川, 松禾, 長淵, 殷栗, 康翎, 瓮津, 谷山, 黃州, 遂安, 安岳, 信川, 文化, 長連, 海州	完帙

www.kci.go.kr

江原道	**江陵, 原州, 淮陽, 襄陽, 春川, 鐵原, 三陟, 寧越, 伊川, 平海, 通川, 旌善, 高城, 杆城, 平昌, 金城, 蔚珍, 歙谷,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麟蹄, 橫城, 安峽**	【關東邑誌】三陟, 蔚珍, 平海, 杆城, 高城, 通川, 鐵原, 伊川, 平康, 安峽, 原州, 寧越, 平昌, 洪川, 旌善, 橫城, 春川, 金化, 麟蹄, 狼川, 江陵, 襄陽, 歙谷, 淮陽, 楊口, 金城	完帙
咸鏡道	**咸興, 永興, 吉州, 安邊, 鏡城,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北青, 德源, 定平, 甲山, 三水, 端川, 明川, 茂山, 長津, 厚州, 文川, 高原, 洪原, 利原**	【關北邑誌】咸山[咸興], 洪原, 北青, 利原, 安邊,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定平, 端川, 吉州, 鏡城, 富寧, 茂山, 會寧, 鍾城, 穩城, 慶源, 慶興, 甲山, 三水, 長津, 明川 【關西邑誌】厚昌[厚州]	完帙
平安道	**平壤, 義州, 寧邊, 安州, 定州, 江界, 昌城, 成川, 朔州, 肅川, 龜城, 中和, 慈山, 宣川, 鐵山, 龍川, 楚山, 三和, 咸從, 祥原, 德川, 价川, 嘉山, 郭山, 順川, 熙川, 碧潼, 雲山, 博川, 渭原, 寧遠, 龍岡, 永柔, 甑山, 三登, 順安, 江西, 陽德, 孟山, 泰川, 江東, 殷山**	【關西邑誌】宣川, 鐵山, 龍岡, 平壤, 義州, 三和, 甑山, 肅川, 安州, 德川, 价川, 熙川, 寧邊, 郭山, 龍川, 朔州, 昌城, 雲山, 泰川, 摶川, 嘉山, 龜城, 定州, 中和, 祥原, 三登, 江東, 江西, 永柔, 陽德, 成川, 殷山, 順川, 慈山, 順安, 咸從, 碧潼, 楚山, 寧遠, 江界, 慈城*, 渭原, 孟山	完帙 추가 1읍

- 밑줄 : 『대전회통』과 읍지의 군현이 일치하는 경우(단, 영, 진, 역, 목장 제외)
- * : 읍지에 추가된 경우

2) 고종친정기

① 1차 집권기 [同治 13年, 1874]

고종의 친정초기(1874-1884)는 대개 東道西器的 정치개혁의 시기로 분류되고 있다.[42] 이때 읍지를 재간행하여 지방통치정보를 점검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호남읍지』(1899)〈K2-4336〉에 수록된 개별 邑誌, 鎭誌, 牧場誌의 書名에서 **"同治十三年"**(1874)으로 기재되어있어 정확한 편년이 확인된다.[43] 곧 萬頃縣, 咸平縣, 務安縣, 玉果縣, 蔚珍府, 兵營, 法聖鎭, 靑山鎭, 加里浦鎭, 碧沙道驛, 靑巖道驛, 珍道牧場 등이 해당한다. 이는 전국단위 편찬사업으로 평가된다.[44]

42) 장영숙, 2010『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65-186면.

43) 해당판본에는 '全羅南道麗水郡邑誌'에 "光武三年己亥五月日"이 기재되어 있어, 최종 1899년 편찬본으로 연대를 비정하고 있다.

44) 이외에도 고종친정기 편찬 읍지가 다수 확인되는데, 1874년경『英陽縣邑誌』〈古 4799-2〉,

www.kci.go.kr

② 2차 집권기 [光緖 17年, 1891]

고종의 친정 2기(1885-1893)는 상대적으로 서구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시기로 평가된다.[45] 이때 당시 근대화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集玉齋도 건립되었다.[46] 일련의 읍지에는 **"光緖十七年"**(1891)이 명기되어있다. 그 중 일부 판본에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表題에 목민관의 印章까지 찍혀있다. 대체로 월 단위까지 편찬시기가 확인된다.

〈그림 1〉『高陽郡輿地勝覽』
〈古 915.12-G749y〉

〈그림 2〉『振威縣邑誌』
〈古 915.12-J562e〉

『龍宮縣邑誌』〈想白古 915.15-Y8〉, 1875년 『重訂南漢志』〈奎 7113〉, 1877년경 『一善誌』〈奎 15484〉, 『仁同邑誌』〈古 4790-22〉, 『扶安邑誌』〈想白古 915.14-B85〉, 1879년경 『慶尙右道宜寧縣輿地勝覽』〈想白古 915.15-Eu47〉, 1881년경 『江華府邑誌』〈奎 10742〉, 『中京誌』〈古 4790-3〉, 『順天續誌』〈想白古 915.14-Su71gS〉, 1882년경 『伊川邑誌』〈想白古 915.16-Ic3〉, 1883년경 『谷城邑誌』〈想白古 915.14-G557〉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읍별 편찬이어서 전국단위 편찬작업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45) 장영숙은 고종 집권 2기를 1885-1896년까지로 구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1894년 이후를 갑오개혁기로 재분류하였다. 장영숙, 앞의 책, 187-264면.

46) 이태진, 2000『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79-306면.

www.kci.go.kr

5월 『抱川郡邑誌』〈古 915.12-P751g〉, 『陽川縣邑誌』〈古 915.12-Y17h〉, 6월 『竹山府邑誌』〈古 915.12-J936b〉, 『陽城縣邑誌』〈古 915.12-Y17s〉, 『龍仁縣邑誌成册』〈古 915.12-Y8h〉, 『高陽郡輿地勝覽』〈古 915.12-G749y〉·〈奎 10709〉·〈古 915.12-G749g〉, 『果川縣邑誌』〈古 915.12-G994h〉, 7월 『陽智縣邑誌』〈古 915.12-Y17j〉, 8월 『振威縣邑誌』〈古 915.12-J562e〉 등이 해당한다.[47]

3) 갑오개혁기 [開國 503-504年, 1894-1895]

청일전쟁(1894-1895)과 맞물려 갑오개혁(1894-1896)이 인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때 지방제도 개편과 맞물려 전국 군현의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종 32년(1895) 5월 23府制가 실시되면서 8道制가 폐지되고 각 군현은 모두 郡으로 변경되었다.[48] 이 때문에 道誌 편찬이 필요하였다. 이후 광무연간에는 13도제가 복구되었으나 각읍의 郡단위 체제는 수정을 거쳐 유지되었다.[49]

하지만 당시 道誌는 실제 고종 31년(1894) 11월(관북)부터 시작되어서, 고종 32년(1895) 6월(호남)까지도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곧 〈그림 4〉와 같이 지방제도 개편 중에 道誌가 제작되어 表題는 "邑誌"로만 표기하고 우측상단에 해당 道의 別稱과 군현을 附記하였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판심제로 "議政府"가 기입된 경우도 보인다.[50] 이 역시 편찬시기와 관련이 있다. 고종 31년(1894) 12월에 議政府가 內閣으로 바뀌었으므로 편찬시작 시기는 내각 개편 이전이며,[51] 朝廷 주도의 전국단위 편찬으로 평가된다.[52]

---

47) 이외에 『南陽府邑誌』(1891년경)〈古 915.12-N152b〉, 『嶺誌要選』(1892)〈奎 12621〉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편찬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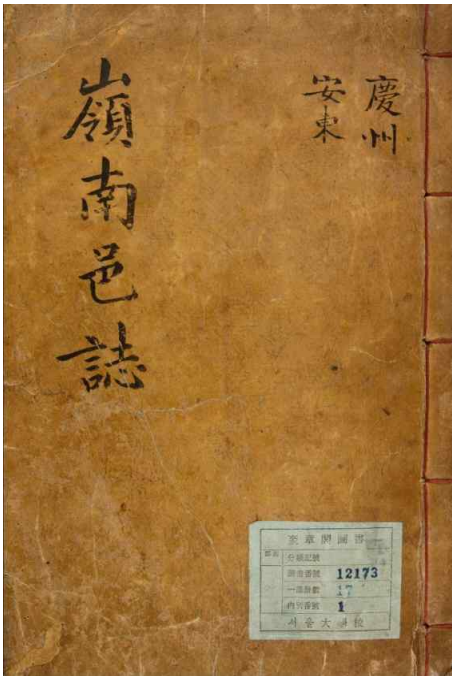
48) 『高宗實錄』 卷33, 高宗 32年 5月 丙申(26日); 유영익, 2000 「갑오경장」, 『한국사』 40, 국사편찬위원회, 237-239면.

49) 광무연간 편찬된 읍지는 서명에서도 점차 "-牧/府/縣+邑誌" 등이 사라지고 "-郡+邑誌"의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 3〉과 같이 仁川府(府尹)는 仁川郡을 포함하여 13개 군을 거느린 광역단위 府로 거듭났는데, 지방제도 개편이전 仁川郡 규모의 행정명 역시 仁川府(府使)로 되어있어 관직 변화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김백철, 「인천부읍지〈奎 10713〉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 10.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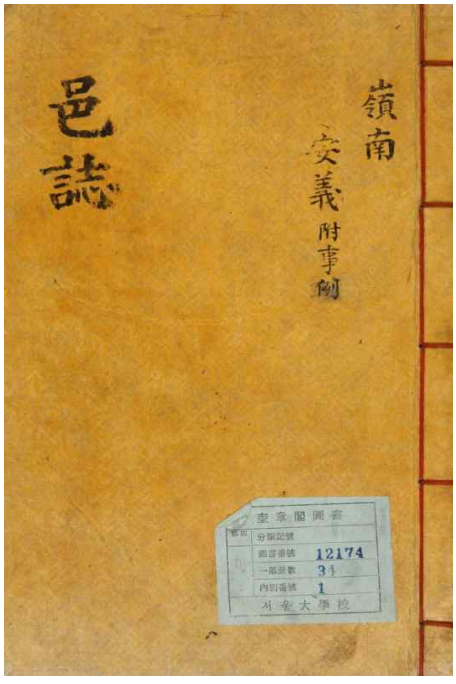
50) 『(畿甸)邑誌』〈奎 12181〉.

51) 『高宗實錄』 卷32, 高宗 31年 12月 戊午(16日).

www.kci.go.kr



〈그림 3〉 1871년『嶺南邑誌』〈奎 12174〉



〈그림 4〉 1895년『(嶺南)邑誌』〈奎 12174〉

실제로 고을의 書名에 "**開國五百三年**/甲午(1894)+月日"-"**開國五百四年**/乙未(1895)+月日"으로 편찬연대를 명기한 경우가 많아서 월 단위까지 확인된다. 해당 연대를 적용해보면 1894년 11월-12월 『(關北)邑誌』〈奎 12179〉, 1894년 12월-1895년 2월 『(湖西)邑誌』〈奎 10767〉, 1894년 11월-1895년 1월[53] 『(嶺南)邑誌』〈奎

52) 양보경, 앞의 논문, 116-117면; 정대영, 앞의 논문, 83-85면; 김태웅, 앞의 논문, 115-120면; 규장각 편, 1993『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3』, 「관북읍지〈奎 12179〉」·「관서읍지〈奎 12169〉」·「영남읍지 〈奎 12174〉」·「호남읍지〈奎 12181〉」, 서울대학교 규장각, 158면, 159면, 230면, 298면; 김백철, 「(호남)읍지〈奎 12181〉 상세정보」·「(영남)읍지〈奎 12174〉 상세정보」·「(호서)읍지〈奎 10767〉 상세정보」·「(기전)읍지〈奎 12181〉 상세정보」(이상 "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53) 초기 해제는 1월로 보았으나 전산화과정에서 5월로 표기되었다. 여기서는 각읍의 書名을 기준으로 확인된 연월만 표기하였다. 규장각 편, 1993『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3』, 「영남읍지〈奎12174〉」, 서울대학교 규장각, 231면; "규장각 홈페이지", 2016.10.30. 검색).

www.kci.go.kr

12174〉, 1895년 2월-6월 『(湖南)邑誌』〈奎 12181〉, 1894년 11월-1895년 2월 『(畿甸)邑誌』〈奎 12182〉, 1895년 3월-4월 『(關西)邑誌』〈奎 12169〉 등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忠淸北道各郡)邑誌』〈奎 10763〉,[54] 『陰竹縣邑誌』〈古 915.12-Eu57h〉[55] 등도 완전히 같은 형식의 읍지로 합철에서 빠진 것이다.

〈표 3〉 갑오개혁기 지방제도 對比 1894-1895년 道誌 수록 현황

1895년 5월-1896년 8월 23府制		1894년 11월-1895년 6월 道誌	
府	郡	도지별 수록 읍	누락률
漢城府 (11郡)	漢城郡, 楊州郡, 廣州郡, 積城郡, 抱川郡, 永平郡, 加平郡, 漣川郡, **高陽郡**, 坡州郡, 交河郡	【(畿甸)邑誌】高陽	缺 10郡
仁川府 (12郡)	仁川郡, 金浦郡, **富平郡**, 陽川郡, **始興郡**, **安山郡**, 果川郡, 水原郡, **南陽郡**, 江華郡, **喬桐郡**, 通津郡	【(畿甸)邑誌】安山, 富平, 南陽, 始興, 喬桐	缺 7郡
忠州府 (26郡)	忠州郡, 陰城郡, 延豐郡, 槐山郡, **堤川郡**, **淸風郡**, **永春郡**, **丹陽郡**, 鎭川郡, 淸安郡, 驪州郡, 龍仁郡, **竹山郡**, 陰竹郡, 利川郡, 陽智郡, 原州郡, 旌善郡, 平昌郡, 寧越郡	【(畿甸)邑誌】竹山 【(忠淸北道各郡)邑誌】淸風, 端陽, 永春, 堤川	缺 15郡
洪州府 (22郡)	洪州郡, **結城郡**, **德山郡**, **韓山郡**, **舒川郡**, **庇仁郡**, **藍浦郡**, **保寧郡**, **林川郡**, **鴻山郡**, **瑞山郡**, **海美郡**, **唐津郡**, **沔川郡**, **泰安郡**, 大興郡, 靑陽郡, 禮山郡, 新昌郡, **溫陽郡**, **牙山郡**, 定山郡	【(湖西)邑誌】德山, 海美, 沔川, 唐津, 瑞山, 泰安, 林川, 鴻山, 韓山, 舒川, 庇仁, 藍浦, 保寧, 結城, 牙山, 溫陽	缺 6郡
公州府 (27郡)	公州郡, 燕岐郡, **恩津郡**, **連山郡**, **石城郡**, **扶餘郡**, **魯城郡**, 沃川郡, 文義郡, **懷德郡**, **鎭岑郡**, **平澤郡**, 報恩郡, 懷仁郡, **永同郡**, **靑山郡**, **黃磵郡**, 淸州郡, **全義郡**, **木川郡**, **天安郡**, **稷山郡**, 安城郡, 振威郡, 陽城郡, **珍山郡**, **錦山郡**	【(湖西)邑誌】扶餘, 天安, 永同, 黃澗, 靑山, 魯城, 恩津, 連山, 鎭岑平澤, 懷德, 石城, 稷山, 全義, 木川 【(湖南)邑誌】錦山, 珎山	缺 10郡

54) 규장각 書目(한국본종합목록)에는 "忠淸北道各郡"이 추가되어있으나 원자료에는 "邑誌"로만 되어있고 실제 양식도 1895년 道誌와 일치한다. 도서관 편, 1981 『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상, 「(충청북도각군)읍지〈奎 10763〉」, 서울대학교 도서관, 1115면; 김지영, 「충청북도각군읍지〈奎 10763〉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55) 內題에 "開國五百四年二月日利川府移屬陰竹縣邑誌"로 표기되어있고, 판심제가 "議政府"이다.

www.kci.go.kr

全州府 (20郡)	**全州郡**, **礪山郡**, **高山郡**, **臨陂郡**, **咸悅郡**, **沃溝郡**, **龍安郡**, **益山郡**, **扶安郡**, **萬頃郡**, **金堤郡**, **金溝郡**, **古阜郡**, **興德郡**, **井邑郡**, **泰仁郡**, **長城郡**, **高敞郡**, **茂長郡**, **靈光郡**	【(湖南)邑誌】 泰仁, 益山, 興德 井邑, 扶安, 咸悅, 龍安, 古阜, 高敞, 金堤, 臨陂, 萬頃, 礪山, 高山, 靈光, 全州, 金溝, 沃溝, 茂長, 長城	完帙
南原府 (15郡)	**南原郡**, **求禮郡**, **雲峯郡**, **谷城郡**, **順天郡**, **光陽郡**, **任實郡**, **長水郡**, **鎭安郡**, **潭陽郡**, **淳昌郡**, **玉果郡**, **昌平郡**, **龍潭郡**, **茂朱郡**	【(湖南)邑誌】 玉果, 求禮, 長水, 龍潭, 谷城, 淳昌, 順天, 雲峰, 潭陽, 昌平, 任實, 南原, 茂朱, 光陽, 鎭安	完帙
羅州府 (16郡)	**羅州郡**, **海南郡**, **珍島郡**, **康津郡**, **長興郡**, **興陽郡**, **寶城郡**, **靈巖郡**, **務安郡**, **咸平郡**, **綾州郡**, **和順郡**, **同福郡**, **光州郡**, **南平郡**, **樂安郡**	【(湖南)邑誌】 靈巖, 長興, 綾州, 同福, 康津, 海南, 和順, 光州, 羅州, 樂安, 南平, 興陽, 珍島, 咸平, 寶城, 務安	完帙
濟州府 (3郡)	濟州郡, 大靜郡, 旌義郡	【(湖南)邑誌-後代補遺】(濟州), (大靜), (旌義)	缺 3郡
晉州府 (21郡)	**晉州郡**, **固城郡**, 鎭海郡, **泗川郡**, **昆陽郡**, **南海郡**, **丹城郡**, **山淸郡**, **河東郡**, **居昌郡**, **安義郡**, **咸陽郡**, **陜川郡**, **草溪郡**, **三嘉郡**, **宜寧郡**, **漆原郡**, **咸安郡**, **昌原郡**, **熊川郡**, **金海郡**	【(嶺南)邑誌】 安義, 陜川, 三嘉, 宜寧, 金海, 山淸, 昌原, 咸陽, 河東, 熊川, 南海, 草溪, 咸安, 晉州, 漆原, 固城, 河陽, 泗川, 昆陽, 巨昌, 丹城	缺 1郡
東萊府 (10郡)	**東萊郡**, **梁山郡**, 機張郡, **蔚山郡**, **彥陽郡**, 慶州郡, 迎日郡, 長鬐郡, **興海郡**, **巨濟郡**	【(嶺南)邑誌】 興海, 金山, 梁山, 蔚山, 彥陽, 東萊, 巨濟	缺 4郡
大邱府 (23郡)	**大邱郡**, **慶山郡**, **漆谷郡**, **仁同郡**, 星州郡, **知禮郡**, **高靈郡**, **善山郡**, **開寧郡**, **金山郡**, **義城郡**, **義興郡**, **軍威郡**, **比安郡**, **密陽郡**, **淸道郡**, **永川郡**, **慈仁郡**, **新寧郡**, 河陽郡, **昌寧郡**, **靈山郡**, **玄風郡**	【(嶺南)邑誌】 大邱 柒谷淸道 密陽 靈山仁同, 慈仁, 善山 昌寧, 新寧, 高靈 玄風慶山 永川 義興, 義城, 軍威, 比安 開寧, 知禮	缺 2郡
安東府 (16郡)	**安東郡**, **靑松郡**, **眞寶郡**, **英陽郡**, **靈德郡**, **寧海郡**, **淸河郡**, **榮川郡**, **禮安郡**, **奉化郡**, **順興郡**, **豐基郡**, **咸昌郡**, **龍宮郡**, **醴泉郡**, **尙州郡**	【(嶺南)邑誌】 淸河, 尙州[聞慶], 醴泉, 順興, 豊基, 安東, 龍宮, 咸昌, 淸松, 眞寶, 寧海, 榮川, 盈德, 禮安, 英陽, 奉化	完帙
江陵府 (9郡)	江陵郡, 蔚珍郡, 平海郡, 三陟郡, 高城郡, 杆城郡, 通川郡, 歙谷郡, 襄陽郡		缺 9郡
春川府 (13郡)	春川郡, 楊口郡, 洪川郡, 麟蹄郡, 橫城郡, 鐵原郡, 平康郡, 金化郡, 狼川郡, 淮陽郡, 金城郡, **楊根郡**, 砥平郡	【(畿甸)邑誌】楊根	缺 12郡
開城府 (13郡)	開城郡, 豐德郡, 朔寧郡, 麻田郡, 長湍郡, 伊川郡, 安峽郡, 兎山郡, 平山郡, 金川郡, 遂安郡, 谷山郡, 新溪郡		缺 13郡

www.kci.go.kr

海州府 (16郡)	海州郡, 延安郡, 白川郡, 瓮津郡, 康翎郡, 長淵郡, 松禾郡, 豐川郡, 安岳郡, 長連郡, 殷栗郡, 載寧郡, 信川郡, 文化郡, 瑞興郡, 鳳山郡		缺 16郡
平壤府 (27郡)	**平壤郡, 安州郡, 肅川郡, 順安郡, 龍岡郡, 永柔郡, 甑山郡, 咸從郡, 三和郡, 慈山郡, 江西郡, 德川郡, 寧遠郡, 熙川郡, 孟山郡, 寧邊郡, 雲山郡, 順天郡, 价川郡, 殷山郡, 成川郡, 陽德郡, 三登郡, 江東郡, 祥原郡, 中和郡**, 黃州郡	【(關西)邑誌】 价川, 順安, 咸從, 順川, 祥原, 雲山, 孟山, 寧遠, 三登, 肅川, 平壤, 甑山, 慈山, 安州, 熙川, 德川, 江西, 陽德, 成川, 江東, 三和, 中和, 殷山, 龍岡, 永柔, 寧邊	缺 1郡
義州府 (13郡)	義州郡, **昌城郡, 碧潼郡, 朔州郡, 龍川郡, 鐵山郡, 宣川郡, 郭山郡, 定州郡, 嘉山郡, 博川郡, 泰川郡, 龜城郡**	【(關西)邑誌】 嘉山, 龍川, 郭山, 博川, 鐵山, 朔州, 龜城, 泰川, 定州, 碧潼, 宣川, 昌城	缺 1郡
江界府 (6郡)	**江界郡, 厚昌郡, 慈城郡, 楚山郡, 渭原郡, 長津郡**	【(關北)邑誌】 長津 【(關西)邑誌】 厚昌, 江界, 慈城 楚山, 渭原	完帙
咸興府 (11郡)	**咸興郡, 定平郡, 永興郡, 高原郡, 文川郡, 德原郡, 安邊郡, 端川郡, 利原郡, 北青郡, 洪原郡**	【(關北)邑誌】 永興, 定平, 利原, 洪原, 安邊, 端川, 北青, 文川, 高原, 德源, 咸興	完帙
甲山府 (2郡)	**甲山郡, 三水郡**	【(關北)邑誌】 三水, 甲(山)	完帙
鏡城府 (10郡)	鏡城郡, 富寧郡, 吉州郡, 明川郡, 慶源郡, 慶興郡, 穩城郡, 鍾城郡, 會寧郡, 茂山郡		缺 10郡

- 밑줄: 23부제의 각군과 1894-1895년 도지와 군현이 일치하는 경우

도지의 편찬시기를 지방제도 개혁과 비교하면 대부분은 지방제도 개혁 이전에 완료되었고, 일부 읍지만 한 달여정도 23부제 시행 이후에 종결되었다. 곧 도지의 편찬은 지방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작업의 성격이 매우 짙었다. 또한 도지를 23부와 비교하면 〈표 3〉과 같이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안동부, 강계부, 함흥부, 갑산부 등만 누락된 郡이 없고, 강릉부, 개성부, 해주부, 경성부는 단 하나의 군도 남아있지 않다. 현재 8道 형태의 裝幀은 중앙정부에서 최종 합철한 것일뿐이므로, 개별 읍지의 편찬은 과거 道 단위의 중간수합을 대신해서 새로운 23부의 행정체계가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1894-1895년 도지의 두번째 특징은 읍사례 등 최신 재정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56] 갑오개혁기 지방재정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문에 "道誌"에서 읍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별책으로도 "-新定事例"가 대거 편찬되었다.[57] 같은 취지에서 營誌, 驛誌, 鎭誌 등도 함께 편찬되었다. 대개 1871년 道誌에는 포함되어있던 특수지들이 합본되지 않고 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畿甸營事例』〈奎 12200〉,[58] 『京畿各邑新定事例』〈奎15234〉,[59] 『畿營新定事例』〈奎 15230〉,[60] 『大阜島新定事例』〈奎 19292〉,[61] 『嶺南營誌』〈奎 12184〉,[62] 『嶺南鎭事例』〈奎貴 12199〉,[63] 1895년『統營誌』〈奎 12186〉,[64] 『嶺南鎭誌』〈奎 12183〉,[65] 『嶺南驛誌』〈奎 12185〉,[66] 『湖南營誌』〈奎 12189〉,[67] 『湖南鎭誌』〈奎 12188〉,[68] 『湖南驛誌』〈奎 12190〉[69] 등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다.[70]

---

56) 양보경, 앞의 논문, 116면; 정대영, 앞의 논문, 83면; 김태웅, 앞의 논문, 115-120면.

57)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연구: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208-233면.

58) 內題에 "開國五百三年十月日 開城府新定事例", "甲午十二月日 廣營事例" 등이 보인다.

59) 表題가 "京畿各邑新定事例 開國五百三年"으로 되어있다.

60) 內題가 "開國五百三年甲午十一月 畿營新定事例"으로 되어있다.

61) 表題가 "甲午十一月日 大阜島新定事例"이다.

62) 內題에 "開國五百三年十二月日 慶尙左水虞侯營所在營誌事例册", "開國五百三年十一月日 右兵營營誌事例成册" 등이 보인다.

63) 內題에 "開國五百三年十一月日 慶尙道尙州鎭事例成册", "國五百三年十一月日 慶尙道慶州鎭營事例" 등이 보인다.

64) 內題에 "乙未正月日 統營誌", "乙未正月日 統營事例" 등이 보인다.

65) 內題에 各鎭마다 "開國五百三年"-"國五百四年" 등이 기재되어있다.

66) 內題에 各驛마다 "開國五百三年"-"國五百四年" 등이 기재되어있다.

67) 內題에 各營마다 "開國五百四年"이 기재되어있다.

68) 內題에 各鎭마다 "開國五百四年"이 기재되어있다.

69) 內題에 各驛마다 "開國五百四年"이 기재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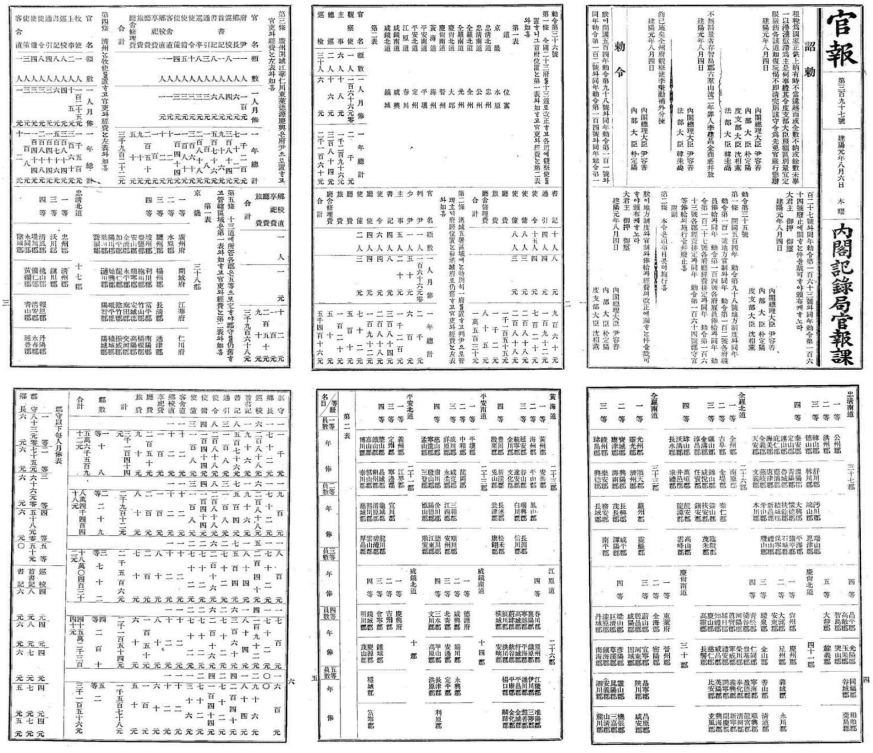
70) 정대영 연구에서 이미 『관서역지』, 『관서진지』, 『기전영지』, 『영남영지』, 『호남역지』, 『호남영지』, 『호남진지』 등이 추가로 제시되었다(정대영, 앞의 논문, 85면). 이외에도 1894년경 『醴泉郡新定事例』〈奎 17202〉, 『比安縣新定事例』〈奎 19467〉, 1895년경 『楊根郡事例』〈奎 27186〉, 『畿甸營誌』〈奎 12187〉, 『淸風郡邑誌』〈想白古 915.13-C421p〉, 『湖南營事例』〈奎貴

www.kci.go.kr

4) 대한제국기

① 광무 1기 [光武 2-3年, 1898-1899]

통상 1899년 광무양식 읍지가 주목받아왔으나, 1898-1899년 사이에 전혀 다른 형식의 읍지가 이미 편찬되고 있었다. 갑오개혁(1894-1895), 을미개혁(1895-1896), 아관파천(1896), 광무개혁(1897-) 등 복잡한 정치변동과 연동되었기 때문이다.[71] 여기서는 그동안 잘 논의되지 않았던 광무초기 읍지를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그림 5〉『官報』제397호의 13도제 및 5등군제

12201〉,『光州邑誌』〈奎 10787〉,『大靜郡古誌』〈奎 10799〉,『中京誌』〈奎 10734〉,『沃川邑誌』〈奎 10764〉,『楊州郡邑誌』〈奎 10733〉 등도 같은 시기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71) 장영숙은 고종 집권 3기를 1897-1907로 분류하였다. 장영숙, 앞의 책, 265-302면: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8-123면.

www.kci.go.kr

첫째, 지방제도의 변화 측면이다. 建陽 元年(고종33, 1896) 8월에 開國 504年(1895) 반포한 「勅令 제98호 地方制度」, 「勅令 제101호 地方官官制」등을 폐기하였으며, 같은날 「勅令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를 裁可하였다.[72] 이 조치가 바로 13道制와 5等郡制 시행을 의미한다. 당시 官報에 그 세부표가 상세히 실려있다.[73] 실제 지방제도 개혁의 여파로 읍지에는 "南北道"나 "新定四等郡"이 附記된 경우가 많다.[74]

둘째, 量地衙門의 양전사업이다. 광무 2년(1898) 7월부터 서양의 측량법을 익히기 시작했고 광무 3년(1899) 4월에는 전국적인 양전이 결정되었다.[75]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각 지방의 읍지가 편찬되고 있었다. 차후 양전사업의 독려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76] 이미 갑오개혁 이후 屯土의 운영을 두고 지방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금단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77] 따라서 양전의 모색과 읍지 편찬은 상호 연동되어 작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지방제도를 반영한 읍지로는 1898년 『(湖西)邑誌』〈古 4790-33〉,[78] 『漆原縣邑誌』〈想白古 915.152-C438〉*,[79] 1899년 『(忠淸南道)邑誌』〈奎 10768〉,[80] 『(慶

72) 『高宗實錄』 卷34, 高宗 33年 8月 4日(양력); 『地方制度』, 勅令 제38호 地方事務章程〈奎2935〉.

73)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74) 南北道 내지 左右道 자체는 조선시대에도 실무적으로 활용되던 개념이지만, 법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가 고종후반에 정규화되었다. 【경기남북도】 『世宗實錄』 卷76, 世宗 19年 2月 己巳(9日); 【평안남북도】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9月 壬子(11日); 【함경남북도】 『世宗實錄』 卷59, 世宗 15年 2月 辛丑(17日); 【경기좌우도】 『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9月 己丑(11日); 【경상좌우도】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閏12月 乙巳(9日); 【전라좌우도】 『成宗實錄』 卷100, 成宗 10年 正月 丁卯(10日); 【충청좌우도】 『成宗實錄』 卷46, 成宗 5年 8月 辛卯(9日); 【평안좌우도】 『文宗實錄』 卷7, 文宗 元年 4月 壬申(4日).

75) 왕현종, 1995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41-120면; 왕현종, 1999 「광무양전·지계사업」, 『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68-69면.

76) 정대영, 앞의 논문, 105면.

77) 김기성, 2015 「갑오개혁 이후 度支部 파견 屯土監官 연구」,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52-463면.

78) 平澤, 夫餘에 新定四等郡, 韓山에 新定三等郡, 鴻山에 三等郡守 등이 각각 부기되어있다.

www.kci.go.kr

尙北道)善山(郡)邑誌』〈奎 10844〉*, 『陰城郡邑誌』〈奎 10762〉*, 『長鬐郡邑誌』〈奎 10816〉,* 『(慶尙北道)盈德郡邑誌』〈奎 10812〉* 등이 해당한다.[81]

② 광무 2기 [光武 3年, 1899]

광무 3년(1899)에 편찬된 읍지는 기초적인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다.[82] 각 읍지는 낱개의 고을 단위로 남아있으나 간헐적으로 각도의 南北道로 10여개 내외의 고을이 합철된 경우도 있다. 表題나 內題에 "光武三年"(고종36, 1899) 내지 "-南道/北道"를 명기하고 군현별 읍지명을 명기하였다. 또한 題添형식으로 道別로 連番을 매겨서 광역단위 작업을 알 수 있다. 道 단위 작업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서두에는 채색지도가 붙어있으며,[83] 본문은 朱絲欄 혹은 烏絲欄으로 板式을 잡았고, 말미에는 부세정보에 "甲午更張으로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표시가 많다. 일제강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參事官室" 인장이 찍힌 경우도 많이 보인다.[84] 또 광무연간 전국단위 편찬후에도 고을별로 추가적인 읍지 편찬이 이루어졌다.[85]

---

79) '結稅'에 戊戌(1898) 간기가 확인된다. 김영인, 「칠원군읍지〈想白古 915.152-C438〉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80) 天安에 新定四等郡, 公州에 新定一等郡 등이 각각 부기되어있다.

81) *는 읍지 형식을 비교하여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와 편찬연대를 다르게 비정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편찬시기가 일치하는 읍지에는 1898년 『赤城誌』〈奎 11665〉·〈古 4790-43〉, 1899년 『陜川郡邑誌』(靑色表紙/白色題添表題)〈想白古 915.152-H113〉, 『知禮郡邑誌』〈想白古 915.15-J564r〉, 『永嘉誌』〈奎 15562〉, 『東萊府誌』〈想白古 915.15-D717〉, 『榮州郡邑誌』〈奎 11073〉, 『江陵郡誌』〈經古 915.16G155〉, 장서각 소장 『湖南邑誌』〈K2-4336〉 등도 해당한다. 다만 형식상 통일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82) 정대영, 앞의 논문, 83-104면, 108-113면 〈부록〉 '원본이 분명한 1899년 읍지(99종)'; 김태웅, 앞의 논문, 120-121면, 125-139면.

83) 地圖 및 體裁는 다음연구가 상세하다. 위의 논문, 125-139면.

84) 이 인장은 광무 3년(1899) 읍지에 거의 대부분 찍혀있으나 고종중반 읍지에서도 간혹 확인되므로 절대연대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85) 통제영 개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광무 4년(1900) 『鎭南郡誌』〈想白古 915.152-J563〉이 편찬되었다. 같은 해 다른 지역에서는 『廬山志』〈奎 3898〉·〈奎 12488〉·〈一簑古 915.142-Se61n〉도 간행하였다. 단 통일적인 요소는 찾기 어렵다.

www.kci.go.kr

5) 통감정치기 [隆熙 1-2年, 1906-1907]

러일전쟁(1904-1905) 이후 일제가 강제로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내정간섭을 위해 통감을 파견하여 주요아문을 장악하였다. 이 시기부터 지방제도의 전면 재조사 진행되었다.[86] 1906년 『忠淸南道邑誌』〈奎 10769〉, 『忠淸南道邑誌』〈奎 15235〉, 1907년 『忠淸北道邑誌』〈奎 10761〉, 『忠淸北道邑誌』〈奎 15236〉 등이 해당한다.[87]

아울러 강제병합 이후 고종대 최종 증보된 전통읍지를 조선의 五針線裝 양식에서 일본의 四針線裝으로 바꾸고 美濃紙에 필사한 판본이 확인되는데,[88] 그 선행적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으로 종래보다 상세한 面・洞・里名이 파악되었다. 이는 일제의 面長制 추진과 연동되어 고찰이 필요하다.[89] 특히, 이때 조사된 面・洞・里는 1910년 및 1914년 지방제도 개편시 행정구역명으로 대거 활용된 듯하다.[90]

---

86) 윤해동, 1997 「'통감부설치기' 지방제도의 개정과 지방지배정책」, 『한국문화』 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94-401면.

87) 김선경, 「충청남도읍지〈奎 10769〉 상세정보」・「충청남도읍지〈奎 15235〉 상세정보」; 김지영, 「충청북도읍지〈奎 10761〉 상세정보」・「충청북도읍지〈奎 15236〉 상세정보」(이상 "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88) 미농지 轉寫本은 『關東邑誌』〈奎 10976〉, 『江陵府誌』〈奎 10960〉, 『高城郡邑誌』〈奎 10957〉, 『杆城郡邑誌』〈奎 10972〉, 『金化郡邑誌』〈奎 10962〉, 『三陟郡邑誌』〈奎 10955〉, 『鐵原郡邑誌』〈奎 10964〉, 『洪川郡邑誌』〈奎 10965〉, 『襄陽郡邑誌』〈奎 10956〉, 『寧越郡邑誌』〈奎 10958〉, 『原州邑誌』〈奎 10967〉, 『平海郡邑誌』〈奎 10969〉, 『歙谷郡邑誌及先生案』〈奎 10971〉, 『橫城郡邑誌』〈奎 10970〉, 『淮陽郡邑誌』〈奎 10973〉, 『平昌郡新地誌』〈奎 10959〉, 『平康邑誌』〈奎 10975〉, 『旌善郡邑誌』〈奎 10966〉, 『伊川邑誌』〈奎 10974〉, 『江原道蔚珍郡輿地略論』〈奎 10968〉, 『楊口郡邑誌』〈奎 10963〉, 『華川郡邑誌』〈奎 10961〉 등이 해당한다.

89) 이상찬, 1986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 『한국학보』 12-1, 일지사, 66-75면.

90) 김백철, 「강릉부지〈奎 10960〉 상세정보」・「고성군읍지〈奎 10957〉 상세정보」・「간성군읍지〈奎 10972〉 상세정보」(이상 "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www.kci.go.kr

〈표 4〉 官撰 전국지리지 편찬 흐름

고 려	① 고려 인종대 **『三國史記』「地理志」**(1145)→
조선전기	② 세종대 『新撰八道地理志』(1424-1432)→③ 문종대 **「高麗史」「地理志」**(1451)→④ 단종대 **『世宗實錄』「地理志」**(1454)→⑤ 성종대 『東國輿地勝覽』(1481)→⑥ 중종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조선후기	⑦ 영조대 **『輿地圖書』**(1757-1765)→⑧ 정조대 『海東輿地通載』(1788~1799?)→⑨ 순조대 **道誌**(1829-1832)→⑩ 헌종대 **道誌**(1842)→
고종연간	㉠ 흥선대원군집권기 **道誌**(1871-1872)→㉡ 고종 1차 친정기 **邑誌**(1874)→㉢ 고종 2차 친정기 **邑誌**(1891)→㉣ 갑오개혁기 **道誌**(1894-1895)→㉤ 광무 1기 **邑誌**(1898-1899)→㉥ 광무 2기 **邑誌**(1899)→㉦ 통감정치기 **邑誌**(1906-1907)

- 진한색: 現傳本, 道誌: 道 단위 이상 現傳, 邑誌: 읍 단위 이상 現傳.

4. 光武 3年(1899) 邑誌의 道別 복원

광무연간(1기·2기) 읍지에는 13도제를 반영한 "-南道/-北道" 혹은 "-郡邑誌"의 서명이 두드러진다. 읍지의 편찬과정은 대개 "1차 조정[內部]의 통일지침(지도 수록, 항목 조정, 부세변화 반영)→2차 各道 세부양식 확정→3차 各邑의 편찬→4차 道別 수합→5차 內部 합철" 등으로 진행된다. 서지정보를 통하여 유사양식을 도별로 분류하면 2차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91] 특히, 편찬양식을 비교해보면 같은 해(광무3, 1899) 편찬된 광무 1기와 2기의 읍지를 구분하는데도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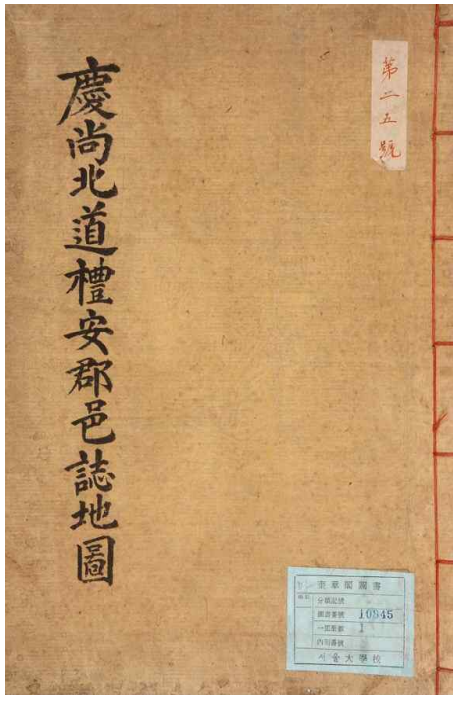
1) 경상북도·경상남도

먼저, 도별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이다. 우선, 표지를 살펴보면 〈그림 6〉 및 〈그림 7〉와 같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모두 우측 상

91) 본고에서는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에서 원문이 확인 가능한 경기·영남·호남·호서·강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읍지를 비교하였다. 향후 해서·관서·관북 등의 읍지도 추가 고찰이 필요하다.

www.kci.go.kr

단에 白色題添을 붙이고 일련번호를 부기하였다. 특히 경상남도는 表題에도 赤色題添을 붙여서 별도로 표기하였다. 본문은 대개 경상북도가 烏絲欄을, 경상남도가 朱絲欄을 사용하였다. 예외적으로 烏絲欄과 朱絲欄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6〉『禮安郡邑誌』〈奎 10845〉

〈그림 7〉『東萊府邑誌』〈奎 10877〉

또한 통상적인 五針線裝 이외에 七針線裝이나 "內部上"의 표기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禮安郡邑誌』의 크기(세로×가로)는 37.4×25.4㎝인데, 이것은 『東萊府邑誌』의 32.9×22.1㎝와 비교하면 다소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장정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한 내부는 대한제국 內務部가 전국지리지의 편찬을 주관하였음을 보여준다.[92] 경기도의 『抱川郡邑誌』〈奎 10730〉에도 "內部"가 확인된다.

92) 정대영, 앞의 논문, 97-98면.

www.kci.go.kr

경상북도 각 읍지의 일련번호를 모두 대조하여 순서에 따라 복원해보면 〈표 5〉와 같다. 第1號-第39號[26·36 缺]의 번호가 확인되는데, 그 중 불과 제26호와 제36호 단 2개만 결번이다. 총 37개 군에 달한다. 한편, 건양 원년(1896)의 지방제도 개편시 경상북도는 1등군(尙州, 慶州*), 2등군(大邱, 安東, 星州, 義城, 永川), 3등군(醴泉, 金山, 善山*, 淸道), 4등군(靑松, 柒谷, 河陽, 眞寶, 延日, 知禮, 慶山, 高靈, 仁同, 豐基, 榮川, 軍威, 禮安, 咸昌, 慈仁, 長鬐*, 寧海, 盈德*, 奉化, 義興, 開寧, 英陽, 比安, 順興, 龍宮, 淸河, 新寧, 聞慶, 興海, 玄風) 등 총 41개 군으로 기록되어있다(* 누락).[93] 이와 비교하면 경주, 선산, 장기, 영덕 등이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련번호는 "十"의 경우 "一O"을 세로로 표기하여 한자에 없는 0을 사용하였다. 근대 숫자 표기방식이 확인된다. 일반적인 형식은 "道名 表題+白色題添號數+烏絲欄" 등이 가장 일치도가 높다. 예외적으로 內題에 光武年號를 사용하거나 혹은 朱絲欄이나 四沈線裝 등도 확인된다. 특히, 『咸昌郡邑誌』〈奎 10820〉는 表題에 靑色題添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월은 광무 3년(1899) 5월이 확인되므로 경상북도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읍지 편찬이 이루어진 것이다.

〈표 5〉 광무 3년 경상북도 읍지(道名 表題+白色題添 號數+烏絲欄) [총 37郡/缺4郡]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慶尙北道)星州郡邑誌』	第一號	奎 10837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醴泉郡邑誌』	第二號	奎 10839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玄風郡邑誌』	第三號	奎 10840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咸昌郡邑誌』	第四號	奎 10820	**靑色題添表題**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慈仁郡邑誌(地圖)』	第五號	奎 10821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義興郡(地圖輿)邑誌』	第六號	奎 10822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豊基郡(邑)誌』	第七號	奎 10823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淸道郡邑誌』	第八號	奎 10824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金山郡邑誌』*	第九號	奎 10825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眞寶(郡)邑誌』	第一O號	奎 10826	白色題添番號/烏絲欄 **/세로표기 '0' 사용**

93)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www.kci.go.kr

『(慶尙北道)開寧郡邑誌』	第一一號	奎 10827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義城郡邑誌』	第一二號	奎 10828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比安郡邑誌』	第一三號	奎 10829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內題 "大韓光武三年五月日-"**
『(慶尙北道)高靈郡邑誌(地圖)』	第一四號	奎 10830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知禮郡(地圖)邑誌』	第一五號	奎 10831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安東郡邑誌』	第一六號	奎 10832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聞慶郡邑誌』	第一七號	奎 10818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新寧郡邑誌』	第一八號	奎 10833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永川郡邑誌』	第一九號	奎 10852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奉化郡邑誌』*	第二O號	奎 10835	白色題添番號/烏絲欄 **/세로표기 '0' 사용**
『(慶尙北道)靑松郡邑誌』	第二一號	奎 10841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軍威郡邑誌』	第二二號	奎 10842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北道)仁同(郡)邑誌』	第二三號	奎 10843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禮安郡邑誌(地圖)』	第二五號	奎 10845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榮川郡邑誌(地圖)』	第二六號	奎 10836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英陽郡邑誌』	第二七號	奎 10846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龍宮郡邑誌』	第二八號	奎 10847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尙州郡邑誌』*	第二九號	奎 10848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慶山郡邑誌』	第三O號	奎 10849	白色題添番號/烏絲欄 **/세로표기 '0' 사용**
『(慶尙北道)大邱府邑誌』	第三一號	奎 10838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地圖 無**
『(慶尙北道)漆谷郡邑誌(地圖)』	第三二號	奎 10850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順興郡邑誌』 [書目: 순흥지]	第三三號	奎 10851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河陽郡邑誌』	第三四號	奎 10819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北道)寧海郡邑誌』	第三五號	奎 10811	**四針線裝**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淸河縣邑誌』	第三七號	奎 10813	**四針線裝**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延日郡邑誌』	第三八號	奎 10814	**四針線裝**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慶尙北道)興海郡邑誌』	第三九號	奎 10815	白色題添番號/烏絲欄

- * : 읍지 형식을 비교하여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와 편찬연대를 달리 비정한 경우
-( ) : 규장각 서목(한국본종합목록)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www.kci.go.kr

다음으로, 경상남도 각 읍지의 일련번호를 조사하여 순서에 따라 복원해보면 〈표 6〉과 같다. 第1號-第30號[4・28・29 缺], 번호미상 3개가 확인된다. 총 30종이며 번호 미상과 결본의 수가 같으므로 대개 양자는 일치할 듯하다. 실제로 건양 원년(1896)의 지방제도에도 경상남도는 총 30개 군으로 표기되어있다.[94] 곧 경남은 모든 군현의 읍지가 보존된 것이다.

일반적인 형식은 "赤色題添/道名 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 등이 가장 일치도가 높다. 예외적으로 內題에 光武年號를 쓰거나, 烏絲欄을 사용하거나 軌線이 아예 없는 경우도 확인된다. 구체적인 연월은 광무 3년(1899) 5월에서 6월까지 확인되므로 경상남도 지역은 대개 이 시기에 편찬이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표 6〉 광무 3년 경상남도 읍지(赤色題添/道名 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 [총 30郡/完]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慶尙南道)草溪郡邑誌』	第一號	奎 10864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昌原(府)邑誌』	第二號	奎 10884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巨濟郡邑誌』	第三號	奎 10885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五月日-"**
『(慶尙南道)居昌郡邑誌』	第五號	奎 10882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丹城郡邑誌』	第六號	奎 10881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山淸郡邑誌』	第七號	奎 10861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慶尙南道)三嘉郡邑誌』	第八號	奎 10855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鎭海郡邑誌』	第九號	奎 10856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熊川郡邑誌』	第一O號	奎 10859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세로표기 '0' 사용**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94)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www.kci.go.kr

『(慶尙南道)咸安郡邑誌』	第一(一號)	奎 10879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機張郡邑誌』	第一二號	奎 10857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慶尙南道)昆陽郡邑誌』	第一三號	奎 10860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東萊府邑誌』	第一四號	奎 10877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 **/"內部上" 표기/軌線 無**
『(慶尙南道)金海郡邑誌』	第一五號	奎 10878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安義郡邑誌』	第一六號	奎 10853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密陽郡邑誌』	第一七號	奎 10867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慶尙南道)河東郡邑誌』	第一八號	奎 10854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咸陽郡邑誌』	第一九號	奎 10862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陜川郡邑誌』	第二O號	奎 10863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세로표기 'O' 사용**
『(慶尙南道)梁山郡邑誌』	第二一號	奎 10866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慶尙南道)宜寧郡邑誌』	第二二號	奎 10865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泗川郡邑誌』	第二三號	奎 10868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漆原郡邑誌』	第二四號	奎 10869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七針線裝**
『(慶尙南道)固城郡邑誌』	第(二)五號	奎 10870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靈山郡邑誌』	第二六號	奎 10871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彥陽郡邑誌』	第二七號	奎 10872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慶尙南道)昌寧郡邑誌』	第二□(號)	奎 10858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www.kci.go.kr

『(慶尙南道)南海郡邑誌』	第三O號	奎 10880	赤色題添 表題 /白色題添番號/朱絲欄 **/세로표기 '0' 사용**
『(慶尙南道)晉州郡邑誌』	제거흔적	奎 10883	赤色題添 表題 /朱絲欄
『(慶尙南道)蔚山郡邑誌』	제거흔적	奎 10873	赤色題添 表題 /朱絲欄

-( ) : 규장각 서목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2) 전라북도 · 전라남도

광무 3년(1899)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읍지는 대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양식과 가깝지만, 경기도 읍지 양식을 일부 유사한 경우도 발견된다. 먼저, 전라북도 각 읍지는 〈표 7〉과 같다. 현재 전라북도 읍지는 일련번호도 第3號 하나만 확인된다. 형식은 "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을 유추할 수 있다.

전라북도 읍지는 낱권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各郡邑誌"로 表題 및 內題 서명이 붙은 도지 형태가 확인된다. 여기에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여산, 금산, 익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 총 26개 군이 수록되어있다.[95] 전라북도는 道 단위의 합철 작업이 "각군읍지"의 형태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96] 이외에 고창군과 무주군을 더하면 총 28개군의 읍지가 광무 3년(1899) 양식이다.

그런데 건양 원년(1896) 전라북도에는 1등군(전주, 남원), 2등군(고부, 김제, 태인), 3등군(礪山, 金溝, 淳昌, 錦山, 咸悅, 任實, 益山 扶安, 鎭安, 臨陂, 茂朱), 4등군(珍山, 沃溝, 長水, 萬頃, 井邑, 求禮, 龍安, 龍潭, 高山, 雲峯) 등이 속한다.[97] 이

95) 김백철, 「전라북도각군읍지〈奎 10770〉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96) 대한제국기 공문서에는 "-道各郡"형식이 다수 확인된다. 『各道各郡訴狀』〈奎 19164〉, 『慶尙北道各郡報告』〈奎 19153〉, 『慶尙南道各郡訴狀』〈奎 19154〉 등이 독립된 책자로 보이며, 낱장 문서명으로도 각종 문서철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09 『규장각소장 고종시대 공문서 시개정목록(하)』, 태학사, 1046-1076면, 1298면; 박성준, 2015 『대한제국기 공문서 연구』, 아모르문디, 153-154면.

97)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www.kci.go.kr

와 광무 3년(1899) 읍지를 비교해보면 전라북도는 총 26개 군으로 표기되어있어 2개 군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광무 3년(1899) 읍지에서 추가된 곳이 바로 무장군과 고창군이라는 사실이다. 두 읍지는 『전라북도각군읍지』에 편재되어있지 않다. 곧 『전라북도각군읍지』의 기획은 건양 원년(1896) 지방제도를 준용한 것이고, 여기에 광무연간의 개편에 따라서 무장군과 고창군이 전라북도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대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移屬현황이다.

〈표 7〉 광무 3년 전라북도 읍지(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 [총 28郡/完]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全羅北道各郡邑誌』	×	奎 10770	朱絲欄 /全州, 南原, 古阜, 金堤, 泰仁, 礪山, 錦山, 益山, 臨陂, 金溝, 咸悅, 扶安, 茂朱, 淳昌, 任實, 鎭安, 珍山, 萬頃, 龍安, 高山, 沃溝, 井邑, 龍潭, 雲峯, 長水, 求禮 총26郡
『高敞郡邑誌』	第三號	奎 10773	白色題添番號/朱絲欄
『茂長郡(地圖)邑誌』	제거흔적	奎 10772	朱絲欄

-( ) : 규장각 서목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다음으로, 전라남도 각 읍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순서에 따라 복원해보면 〈표 8〉과 같다. 전라남도는 第1號-第30號(10・18・20 缺), 번호미상 4개로 확인된다. 대개 번호 미상과 결본이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총 31책이나 남아있어 거의 대부분 보존된 경우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건양 원년(1896) 26개 군에서 광무 3년(1899) 28개 군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두 개의 군이 본래 전라남도 소속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는 건양 원년(1896) 33개 군에서 광무 3년(1899) 31개 군으로 축소되었다.[98] 이에 전라남도 읍지 31책은 완질로 볼 수 있다.

98)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www.kci.go.kr

일반적인 형식은 “道名 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이 두드러진다. 예외도 적지 않게 나타나나다. 七針線裝을 사용하거나 內題에 “광무연호”를 기입하거나 烏絲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특히, 『智島郡邑誌』〈奎 10786〉와 같이 表題에 印章을 찍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경기도 읍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식이다. 또 구체적인 연월은 광무 3년(1899) 5월에서 7월 사이로 나타나며, 이 시기 전라남도의 읍지 편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99]

〈표 8〉 광무 3년 전라남도 읍지(道名 表題+白色題添 號數+朱絲欄) [총 31郡/完]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全羅南道順天郡邑志』 [書目: 신증승평지]	第一號	奎 10791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智島郡邑誌』	第二號	奎 10786	**表題 인장**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全羅南道)谷城郡邑誌』	第三號	奎 10785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七月日-”**
『同福郡邑誌』	第四號	奎 10783	白色題添番號/烏絲欄*
『潭陽郡邑誌』	第五號	奎 10784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全羅南道)靈光(郡地圖)邑誌』	第六號	奎 10789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康津地圖邑誌』 [서목: 강진군읍지]	第七號	奎 10788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全羅南道-”**
『全羅南道南平地圖邑誌』 [書目: 남평군읍지]	第八號	奎 10776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全羅南道)昌平郡邑誌』	第九號	奎 10777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全羅南道)光陽郡邑誌』	第一一號	奎 10774	白色題添番號/朱絲欄*
『突山郡邑誌』	第一二號	奎 10807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七月日全羅南道-”**
『(全羅南道)寶城郡邑誌』	第一三號	奎 10806	白色題添番號/朱絲欄*
『長興郡邑誌』	第一四號	奎 10805	白色題添番號/烏絲欄*
『興陽誌』	第一五號	奎 10804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全羅南道)麗水郡邑誌』	第一六號	奎 10803	白色題添番號/朱絲欄*

99) 한편, 1895년 『湖南邑誌』〈奎 12181〉의 제10책에도 「光武三年五月日(濟州郡)邑誌」이 후대에 보유형식으로 필사되어 중복 수록되어있다.

www.kci.go.kr

表題: 無 [書目: 제주읍지]	第一七號	奎 10797	朱絲欄*/**內題 "光武三年五月日邑誌濟州"**
『旌義邑誌』 [書目: 정의읍고지]	第一九號	奎 10798	朱絲欄* **/題添・書名 본문표기**
『綾州郡邑誌』	第二一號	奎 10802	白色題添番號/烏絲欄*
『全羅南道和順郡輿地勝覽』 [書目: 화순군읍지]	第二二號	奎 10779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全羅南道)樂安郡邑誌(成册)』	第二(三)號	奎 10801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海南邑誌』	第二四號	奎 10780	白色題添番號/烏絲欄*
『羅州郡邑誌』	第二五號	奎 10781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咸平郡邑誌(及地圖書)』	第二六號	奎 10809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七月日-"**
『長城郡邑誌(地圖幷附)』	第二七號	奎 10782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光武三年六月日全羅南道)務安邑誌』	第二八號	奎 10808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
『全羅南道靈巖郡邑誌輿地圖册』	第二九號	奎 10790	白色題添番號/朱絲欄
『(全羅南道)莞島郡邑誌』	第三O號	奎 10792	白色題添番號/朱絲欄 **七針線裝/內題 "光武三年九月日-"**
『(全羅南道)興德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71	朱絲欄* **/內題 "光武三年月日-"**
『(全羅南道)玉果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75	烏絲欄*
『大靜郡古誌』	×	奎 10799	朱絲欄*
『全羅南道珍島郡邑誌(地圖)』	×	奎 10778	烏絲欄* **/內題 "光武三年六月日全羅-"**

- * :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 원본 이미지가 흑백으로 판식을 「기본정보」에 근거한 경우.[100]
- ( ) : 규장각 서목(한국본종합목록)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 [ ] : 表題와 서목 양식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경우.

100) 현재 "지리지 종합정보"에서 읍지 지도는 칼라로 구축되어있으나 읍지 본문은 흑백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특히, 지도의 匡廓이 적색일지라도 본문의 광곽은 색깔이 다를 수 있어 「기본정보」의 板式을 따랐다. 규장각 지리지 자료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누어 온라인 DB화와 영인본 출간이 이루어졌다. 호남지역은 일찍이 DB화와 영인본 간행이 완료되었으나 정보화사업 초기단계에 구축되어 흑백 이미지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영남은 사업진행이 늦어져 규장각총서로 간행되지 못하였으나 정보화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져 고화질 칼라로 구축되어있다. 규장각 편, 1997 『강원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편, 1998-2000 『경기도읍지』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편, 2003-2009 『전라도읍지』 1-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편, 2001 『충청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

www.kci.go.kr

3) 경기도 · 충청북도

광무 3년(1899) 읍지는 영남과 호남 이외에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을 추가로 서지사항을 검토해보았다. 그런데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비교적 道 단위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양식상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광무 1기 편찬사업으로 분류하여 본고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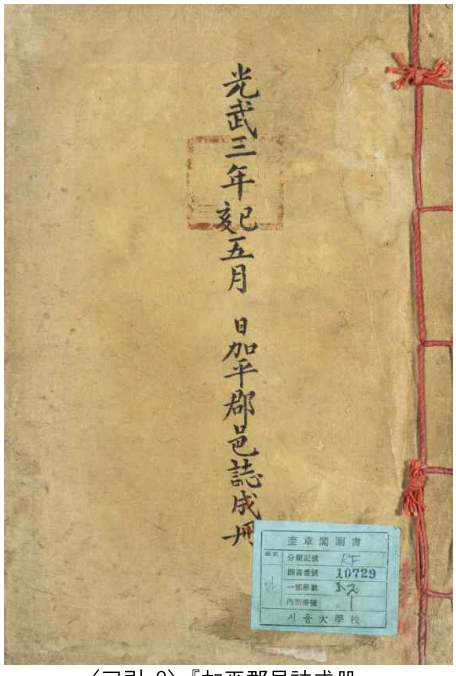
먼저, 경기도 읍지의 표지를 살펴보면 〈그림 8〉 및 〈그림 9〉과 같이 목민관의 인장을 찍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서명형식도 대개 "光武"연호를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光緖 17年(1891) 읍지에서도 이미 확인된다.

광무 3년(1899)에 편찬된 경기도 읍지를 수합해 보면 〈표 9〉과 같다. 일련번호는 제13호(음죽), 제23호(강화), 제25호(진위)만이 남아있고, 〈그림 8〉과 같이 대부분 題添을 제거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완전히 동일한 읍지를 2부씩 만든 경우(교동, 교하, 과천, 광주, 마전, 수원, 시흥, 안산, 양근, 양천, 용인, 이천, 인천, 죽산, 적성)가 많이 보인다.[101] 다른 도에서 같은 해(1899) 편찬된 읍지들은 대개 대한제국 출범초기의 형식을 띠는 것과 구분된다. 중복을 제외하고 총 34개 군의 읍지가 남아있다.

건양 원년(1896) 지방제도에서 경기도는 1등군(廣州府, 開城府*, 江華府, 仁川府: 4府制), 2등군(水原), 3등군(驪州, 楊州*, 長湍, 通津), 4등군(坡州, 豐德, 安山, 金浦, 加平, 陽川, 果川, 喬桐, 利川, 抱川, 朔寧*, 永平, 龍仁, 始興, 漣川, 富平, 竹山, 安城, 麻田, 陰竹, 砥平, 陽智, 南陽, 楊根, 高陽, 交河, 振威, 積城, 陽城) 등 총 38군이다(* 누락).[102] 곧 개성부, 양주군, 삭녕군, 고양군 등 4개 군이 광무 3년(1899) 읍지에는 빠져있다.

101) 규장각본 이외에도 장서각본에도 유사 읍지가 확인된다. 정대영, 앞의 논문, 90-91면.
102)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www.kci.go.kr



〈그림 8〉『加平郡邑誌成册』
〈奎 10729〉

〈그림 9〉『喬桐郡邑誌』
〈古 915.12-G999g〉

경기도 읍지의 형식은 "年號/印章 表題+題添번호 흔적+朱絲欄" 등을 띠었다. 이례적으로 『永平郡邑誌』〈奎 10722〉와 같이 赤色표지를 사용한 경우도 보인다. 『水原郡邑誌』〈奎 10702〉, 『始興郡邑誌』〈想白古 915.11-Si28〉, 『利川郡邑誌』〈奎 10700〉 등과 같이 본문에 궤선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陰竹郡邑誌』〈奎 10724〉와 같이 表題가 비워져있고 內題에 "光武三年五月日陰竹郡邑誌"를 기입하고 인장과 題添 일련번호까지 부여한 경우도 있다. 이는 본래 표지를 만들지 못하여 본문에 바로 기재한 것을 후대에 改裝한 것이다. 『양지군읍지』〈奎 10723〉 역시 表題가 없어 유사하다.

구체적인 연월로 광무 3년(1899) 5월에서 11월까지 보여서 이 시기 경기도 읍지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103] 그런데 『始興郡邑誌』〈奎 10711〉는 여타 경기도 읍지와 유사하게 "光武三年五月日"로 표기되어있는 반면에, 『始興郡邑誌』〈想白古

www.kci.go.kr

915.11-Si28〉은 용인현이 추가되고 날짜가 "光武三年十一月日"로 다르게 기재된 점이 특징이다. 추가작업으로 보인다.

〈표 9〉 광무 3년 경기도 읍지(年號/印章 表題+題添번호 흔적+朱絲欄) [총 34郡/缺4郡]

읍명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가평	『(光武三年己亥五月日)加平郡邑誌成册』	제거흔적	奎 10729	**表題인장**/朱絲欄
강화	『江華府誌』	第二三號	奎 10703	**題添제거후 기입** /朱絲欄
교동	『(光武三年五月日)喬桐郡邑誌(地圖)』	제거흔적	古 915.12-G999g	**表題인장**/朱絲欄
		제거흔적	奎 10731	**表題인장**/朱絲欄
교하	『(光武三年五月日)交河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27	**表題인장**/朱絲欄
		×	古 915.12-G999h	**表題인장**/朱絲欄
과천	『果川郡邑誌』	×	古 915.12-G994c	朱絲欄
		제거흔적	奎 10708	朱絲欄
광주	『(光武三年五月日)廣州府邑誌』	×	奎 10701	**본문궤선 無/지도 無**
		×	古 915.12-G994b	地圖 無/烏絲欄
김포	『(光武三年五月日)金浦郡邑誌及地圖成册』	제거흔적	奎 10707	**表題인장**/朱絲欄
남양	『南陽郡邑誌』	×	奎 10705	**烏絲欄**
마전	『(光武三年五月日)麻田郡邑誌(册)』	제거흔적	奎 10725	**表題인장**/朱絲欄
		×	古 915.12-M289g	**表題인장**/朱絲欄
부평	『富平郡邑誌』	×	奎 10715	**백색題添 表題/內題 "大韓光武三年五月日"표기**/朱絲欄
수원	『(光武三年五月日)水原郡邑誌』	제거흔적	古 915.12-Su93g	朱絲欄
		×	奎 10702	**본문궤선 無**

103) 정대영의 연구에서는 규장각본을 5-8월로, 장서각본을 1-12월까지로 조사하였다. 정대영, 앞의 논문, 96면.

www.kci.go.kr

시흥	『(光武三年五月日京畿道)始興郡邑誌(地圖)』	제거흔적	奎 10711	**七針線裝** /朱絲欄
	『(光武三年十一月日)始興郡邑誌』	×	想白古 915.11-Si28	**본문궤선 無** **/附龍仁縣誌**
안산	『(光武三年五月日)安山郡邑誌(地圖)』	×	奎 10717	**表題인장**/朱絲欄
		×	古 915.12-An81g	**表題인장**/朱絲欄
안성	『(光武三年五月日)安城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26	**表題인장/白色題添 表題** /朱絲欄
양근	『(光武三年五月日)楊根郡邑誌輿地圖成册』	제거흔적	奎 10728	朱絲欄
		×	古 915.12-Y17g	朱絲欄
양성	『陽城郡邑誌(附地圖)』	×	奎 10732	**白色題添 表題** **/烏絲欄**
양지	表題: 無 [書目: 양지군읍지]	×	奎 10723	**內題 "光武三年五月日陽智郡邑誌"**/朱絲欄
양천	『(光武三年五月日)京畿陽川郡邑誌(地圖)』	제거흔적	奎 10721	**表題인장**/朱絲欄
		×	古 915.12-Y17c	**表題인장**/朱絲欄
여주	『驪州邑誌』	제거흔적	奎 10710	朱絲欄
연천	『漣川郡邑誌(地圖)』	×	奎 10736	**白色題添 表題** **/烏絲欄**
영평	『(光武三年五月日)永平郡邑誌(輿地圖)』	×	奎 10722	**赤色表紙**/朱絲欄
용인	『龍仁郡(地圖邑)誌』	×	古 915.12-Y8g	朱絲欄
		제거흔적	奎 10706	朱絲欄
음죽	表題: 無 [書目: 음죽군읍지]	第一三號	奎 10724	朱絲欄/**인장・題添・서명** **본문 표기/內題 "光武三年五月日陰竹郡邑誌"**
이천	『(光武三年五月日)利川郡邑誌』 [書目: 이천부읍지]	제거흔적	古 915.12-Ic3g	**表題인장**/朱絲欄 **/地圖 無**
	『(光武三年五月日)利川郡邑誌』	×	奎 10700	**본문궤선 無/地圖 無**
인천	『仁川府邑誌(附地圖)』	×	古 915.12-In2b	朱絲欄

www.kci.go.kr

		제거흔적	奎 10713	朱絲欄
장단	『(光武三年八月日)長湍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37	**表題인장/烏絲欄**
죽산	『(光武三年八月日)竹山郡邑誌(地圖並附)』	제거흔적	奎 10720의 1	**內題 "光武三年八月 日"**/朱絲欄
		제거흔적	奎 10720의 2	**內題 "光武三年八月 日"**/朱絲欄
적성	『(光武三年五月日)積城郡誌』	제거흔적	奎 10719	**表題인장**/朱絲欄
		×	古 915.12-J46s	**表題인장**/朱絲欄/地圖 無
지평	『(光武三年五月日)砥平郡邑地輿地圖』	제거흔적	奎 10716	**表題인장**/朱絲欄
진위	『(光武三年五月日)京畿道振威郡邑誌輿地圖成册』	第三五號	奎 10714	**題添없이 기입**/朱絲欄
파주	『(光武三年五月日)坡州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12	朱絲欄
포천	『(京畿道)抱川郡邑誌(幷地圖)』	제거흔적	奎 10730	**表題인장 /"內部"표기**/朱絲欄
풍덕	『豐德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35	朱絲欄/**內題 "光武三年五月日-"**
통진	『通津邑誌』 [書目: 통진군읍지]	제거흔적	奎 10704	朱絲欄

- ( ) : 규장각 서목(한국본종합목록)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 [ ] : 表題와 서목 양식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경우
- ■ : 읍지가 2부씩 現傳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 읍지를 분류해보면 〈표 10〉과 같다. 일련번호는 확인되지 않으며 題添을 제거한 흔적만 보인다. 현재 충청북도는 총 16개 郡이 남아있다. 건양 원년(1896) 충청북도는 1등군(忠州, 淸州), 3등군(沃川, 鎭川), 4등군(淸風, 堤川, 永同, 陰城, 槐山, 懷仁, 黃磵, 報恩, 淸安, 靑山, 丹陽, 永春, 延豐) 등 총 17개 군이 확인된다.[104] 광무 3년(1899) 읍지에는 건양 원년(1896)의 음성군이 빠져있다. 음성군은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 개편때에도 忠州府에 속하여,[105] 충청남

104) 『官報』 第397號, 建陽 元年 8月 6日 木曜.
105) 『高宗實錄』 卷33, 高宗 32年 5月 丙申(26日).

www.kci.go.kr

도로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1개 군이 누락되었다.

충청북도 읍지의 형식은 "道名 表題+題添번호 흔적+朱絲欄"이 가장 많이 보인다. 하지만 『忠淸北道槐山郡邑誌』〈奎 10755〉, 『淸州郡邑誌』〈奎 10747〉, 『鎭川郡邑誌』〈奎 10748〉 등과 같이 表題에 수령의 인장을 찍은 경우도 확인된다. 경기도 읍지의 양식을 공유한 사례이다. 또한 內題에 "광무"연호를 사용한 경우도 보이는데, 구체적인 연월은 광무 3년(1899) 5월만 확인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충청북도 읍지 편찬이 이루어진 것이다.

〈표 10〉 광무 3년 충청북도 읍지(道名/印章 表題+題添번호 흔적+朱絲欄) [총 16郡/缺1郡]

읍명	表題	題添번호	도서번호	비고
괴산	『忠淸北道槐山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55	**表題 인장**/朱絲欄 **/內題 "光武三年五月日-"**
단양	『(忠淸北道)丹陽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45	朱絲欄
보은	『忠淸北道報恩郡邑誌輿地圖』	제거흔적	奎 10757	朱絲欄
연풍	『延豊郡邑誌』	×	奎 10753	朱絲欄
영동	『永同邑誌』	×	奎 10752	朱絲欄
영춘	『永春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46	朱絲欄/**地圖 無**
옥천	『沃川(郡地圖)邑誌』	제거흔적	奎 10759	朱絲欄
청안	『(忠淸北道)淸安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54	朱絲欄
청산	『靑山郡邑誌(及地圖)』	제거흔적	奎 10756	朱絲欄
청주	『(忠淸北道)淸州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47	**表題 인장**/朱絲欄
청풍	『淸風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44	朱絲欄
충주	『忠州郡邑誌』	×	奎 10758	朱絲欄
제천	『堤川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50	朱絲欄
진천	『鎭川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48	**表題 인장**/朱絲欄
회인	『(忠淸北道)懷仁郡邑誌』	제거흔적	奎 10751	朱絲欄
횡간	『(忠淸北道)黃澗郡(地圖)邑誌』	×	奎 10749	朱絲欄

- ( ) : 규장각 서목(한국본종합목록)에서 제외된 본래의 標題를 살린 경우.
- * : 읍지 형식을 비교하여 "지리지 종합정보"(2016.10.30. 검색)와 편찬연대를 달리 비정한 경우.

www.kci.go.kr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주로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종대 읍지의 연대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개별 읍지단위의 서지정보와 해제는 작성되어왔으나, 각 시대별 특징에 대한 묶음작업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시론적인 형태로나마 우선 서지사항에 대한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배경으로 고종대 이전 여러 판본(『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해동여지통재』등)에 대해서 그 성격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곧 역사-지리의 집대성, 지방통치체제의 개편, 문화와 통치 정보의 확보 등 다양한 특징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은 고종대 읍지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종연간 편찬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흥선대원집권기(1871-1872), 고종친정 1기(1874)·2기(1794-1895), 광무 1기(1898-1899)·2기(1899), 통감정치기(1906-1907) 등 총 6차례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고종친정 2기, 광무 1기, 통감정치기 등의 읍지 편찬은 종래에 거의 언급되지 않던 연대분류를 추가해보았다. 더욱이 광무 1기와 2기를 구분함으로써 시기별 유사성뿐 아니라 양식상 차별성도 감안하였다.

셋째, 광무 3년(1899) 읍지를 종합하여 도별 복원을 시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광무연간 읍지의 존재양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광무 3년(1899) 읍지는 경상북도(37郡/缺4郡/광무 5월), 경상남도(30郡/完帙/광무 5월-6월), 전라북도(29郡/完帙/연월미상), 전라남도(30郡/完帙/광무 5월-7월), 경기도(34郡/缺4郡/광무 5월-11월), 충청북도(16郡/缺1郡/광무 5월), 충청남도(無), 강원도(無) 등이 확인된다. 각각 道別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다. 북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가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고종대는 조선왕조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근대화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단위의 읍지편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읍지에는 급격한 정국변화와 지방제도의 개혁면모가 여실히 반영되었다. 이러한 기초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www.kci.go.kr

고종대 읍지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보다 세밀한 분류나 성격부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논문투고일(2016. 11. 14),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6)

www.kci.go.kr

참고문헌

1. 원사료

『三國史記』,「地理志」,『高麗史』,「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增補文獻備考』,『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官報』

【조선후기】『關北邑誌』〈想白古 915.19-G995〉,『北關誌』〈奎 4790〉,『北關誌』〈古 4790-18〉,『慶尙道邑誌』〈奎 666〉,『京畿誌』〈奎 1217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關東誌』〈古 2780-1〉

【1871-1872】『湖西邑誌』〈奎 12176〉,『關東邑誌』〈奎 12171〉,『關東邑誌』〈奎 12172〉,『嶺南邑誌』〈奎 12173〉,『湖南邑誌』〈奎 12175〉,『京畿邑誌』〈奎 12177〉,『關北邑誌』〈奎 10995〉,『關西邑誌』〈奎 12168〉,『北關邑誌』〈奎 12170〉,『(關北)邑誌』〈奎 667〉,『1872년 地方地圖』

【1874-1875】『英陽縣邑誌』〈古 4799-2〉,『龍宮縣邑誌』〈想白古 915.15-Y8〉,『重訂南漢志』〈奎 7113〉,『一善誌』〈奎 15484〉,『仁同邑誌』〈古 4790-22〉,『扶安邑誌』〈想白古 915.14-B85〉,『慶尙右道宜寧縣輿地勝覽』〈想白古 915.15-Eu47〉,『江華府邑誌』〈奎 10742〉,『中京誌』〈古 4790-3〉,『順天續誌』〈想白古 915.14- Su71gS〉,『伊川邑誌』〈想白古 915.16-Ic3〉,『谷城邑誌』〈想白古 915.14-G557〉

【1891】『抱川郡邑誌』〈古 915.12-P751g〉,『陽川縣邑誌』〈古 915.12-Y17h〉,『竹山府邑誌』〈古 915.12-J936b〉,『陽城縣邑誌』〈古 915.12-Y17s〉,『龍仁縣邑誌成册』〈古 915.12-Y8h〉,『高陽郡輿地勝覽』〈古 915.12-G749y〉·〈奎 10709〉·〈古 915.12-G749g〉,『果川縣邑誌』〈古 915.12-G994h〉,『陽智縣邑誌』〈古 915.12-Y17j〉,『振威縣邑誌』〈古 915.12-J562e〉,『南陽府邑誌』〈古 915.12-N152b〉,『嶺誌要選』〈奎 12621〉

【1894-1895】『(關北)邑誌』〈奎 12179〉,『(湖西)邑誌』〈奎 10767〉,『(嶺南)邑誌』〈奎 12174〉,『(湖南)邑誌』〈奎 12181〉,『(畿甸)邑誌』〈奎 12182〉,『(關西)邑誌』〈奎 12169〉,『(忠淸北道各郡)邑誌』〈奎 10763〉,『陰竹縣邑誌』〈古 915.12-Eu57h〉,『畿甸營事例』〈奎 12200〉,『京畿各邑新定事例』〈奎15234〉,『畿營新定事例』〈奎 15230〉,

www.kci.go.kr

『大阜島新定事例』〈奎 19292〉, 『嶺南營誌』〈奎 12184〉, 『嶺南鎭事例』〈奎貴 12199〉,『統營誌』〈奎 12186〉,『嶺南鎭誌』〈奎 12183〉,『嶺南驛誌』〈奎 12185〉,『湖南營誌』〈奎 12189〉,『湖南鎭誌』〈奎 12188〉,『湖南驛誌』〈奎 12190〉,『醴泉郡新定事例』〈奎 17202〉,『比安縣新定事例』〈奎 19467〉,『楊根郡事例』〈奎 27186〉,『畿甸營誌』〈奎 12187〉, 『淸風郡邑誌』〈想白古 915.13-C421p〉, 『湖南營事例』〈奎貴 12201〉, 『光州邑誌』〈奎 10787〉,『大靜郡古誌』〈奎 10799〉,『中京誌』〈奎 10734〉,『沃川邑誌』〈奎 10764〉,『楊州郡邑誌』〈奎 10733〉

【1898-1899】『(湖西)邑誌』〈古 4790-33〉, 『(忠淸南道)邑誌』〈奎 10768〉, 『漆原縣邑誌』〈想白古 915.152-C438〉, 『(慶尙北道)善山(郡)邑誌』〈奎 10844〉, 『陰城郡邑誌』〈奎 10762〉,『長鬐郡邑誌』〈奎 10816〉,『(慶尙北道)盈德郡邑誌』〈奎 10812〉,『赤城誌』〈奎 11665〉·〈古 4790-43〉,『陜川郡邑誌』〈想白古 915.152-H113〉,『知禮郡邑誌』〈想白古 915.15-J564r〉,『永嘉誌』〈奎 15562〉,『東萊府誌』〈想白古 915.15-D717〉,『榮州郡邑誌』〈奎 11073〉,『江陵郡誌』〈經古 915.16G155〉, 장서각 소장 『湖南邑誌』〈K2-4336〉

【1899】〈표 5〉-〈표 10〉 참조

【1906-1907】『忠淸南道邑誌』〈奎 10769〉, 『忠淸南道邑誌』〈奎 15235〉, 『忠淸北道邑誌』〈奎 10761〉,『忠淸北道邑誌』〈奎 15236〉

【일제강점기】『關東邑誌』〈奎 10976〉, 『江陵府誌』〈奎 10960〉, 『高城郡邑誌』〈奎 10957〉, 『杆城郡邑誌』〈奎 10972〉, 『金化郡邑誌』〈奎 10962〉, 『三陟郡邑誌』〈奎 10955〉, 『鐵原郡邑誌』〈奎 10964〉, 『洪川郡邑誌』〈奎 10965〉, 『襄陽郡邑誌』〈奎 10956〉, 『寧越郡邑誌』〈奎 10958〉, 『原州邑誌』〈奎 10967〉, 『平海郡邑誌』〈奎 10969〉, 『歙谷郡邑誌及先生案』〈奎 10971〉, 『橫城郡邑誌』〈奎 10970〉, 『淮陽郡邑誌』〈奎 10973〉, 『平昌郡新地誌』〈奎 10959〉, 『平康邑誌』〈奎 10975〉, 『旌善郡邑誌』〈奎 10966〉, 『伊川邑誌』〈奎 10974〉, 『江原道蔚珍郡輿地略論』〈奎 10968〉, 『楊口郡邑誌』〈奎 10963〉,『華川郡邑誌』〈奎 10961〉

2. 지리지 연구(주제별)

【지리: 서지학 및 역사학 포함】

김경수, 2004「『寧城誌』의 편찬과 그 성격」,『역사와 담론』37, 호서사학회.

www.kci.go.kr

김경옥, 2013「『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김기혁, 2007「지역문화 연구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선경, 2015「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금릉읍지』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8,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김전배, 1974「조선왕조의 읍지연구」『한국비블리아』 2, 한국비블리아학회[『문화재』 9, 국립문화재연구소, 1975]

김태웅, 2013「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 奎章閣 所藏 邑誌를 중심으로」, 『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류창호, 1994「『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인천: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조의 역주」, 『황해문화』 2-4, 새얼문화재단.

_____, 1995「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부평: 부평도호부조의 역주」, 『황해문화』 3-2, 새얼문화재단.

_____, 1996「『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강화(上)・(下): 강화도호부조의 역주」, 『황해문화』 4-1・4-2, 새얼문화재단.

박종진, 2013「조선후기 개성읍지에 기록된 '개성'의 산」,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인호, 2016「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배우성, 1996「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4, 일지사.

변주승, 2006「『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_____, 2007「조선후기 輿地圖書의 성격과 인천 지역의 특성」,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범선규, 2010「『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가 갖는 기후 및 식생 연구 자료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1, 한국지역지리학회.

신은경, 2009「地理空間의 談論化 과정에 대한 一考察: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擇里志』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1,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장리, 2011「『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비교」, 『역사민속학』 36, 한국역사민속학회.

안현주, 2013「조선시대 長興의 邑誌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양보경, 1987『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

www.kci.go.kr

학과 박사논문.
양윤정, 2013「18세기『여지도서』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규장각』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진석, 2013「18세기말 전국 지리지『해동여지통재』의 추적」,『규장각』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오이환, 2011「『晋陽誌』의 출판」,『동방학지』15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유재춘, 2011「『關東誌』의 편찬 과정과 사료적 특성」,『강원사학』25, 강원사학회.
윤동원, 2013「宣城邑誌와 禮安郡邑誌의 體制와 내용 분석」,『디지틀도서관』72,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_____, 2014「嶺誌要選의 安東編 내용 분석」,『디지틀도서관』75,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이동주, 2011「奧田悌의『慶州誌』발간의 역사적 성격」,『동국사학』5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이무성, 1982「韓國의 官撰地理志」,『규장각』6, 서울대학교 규장각.
이상태, 1995「지리지의 편찬」,『한국사』26, 국사편찬위원회.
이 욱, 2016「임란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승평지』편찬」,『대구사학』124, 대구사학회.
이윤갑, 1989「邑誌雜記(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론 연구」,『대구사학』36, 대구사학회.
이재두, 2016「1635년(인조13) 현풍현감 김세렴의『포산지』편찬」,『퇴계학과 유교문화』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이현채 외, 2014「조선시대 지리지류에 나타난 경기지역 산림관련 조항 분석: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심으로」,『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정대영, 2011「1899년 전국읍지상송령과 읍지편찬 연구」,『서지학보』38, 한국서지학회.

_____, 2015「英祖연간 '여지도서'의 제작과정과 지도학적 의의」,『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전상운, 1966「李朝初期의 地理學과 地圖」,『고문화』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정두희, 1976「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Ⅰ)·(Ⅱ)」,『역사학보』69·70, 역사학회.
정의성, 1996『동국여지승람의 서지적 연구: 초고본부터 신증본까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정치영, 2008「『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 연구」,『대한지리학회지』43-4, 대한지리학회.
조성을, 2006「『世宗實錄』「지리지」와『고려사』「지리지」의 역사지리 인식: 고조선,

www.kci.go.kr

삼한, 삼국의 수도와 강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9, 조선시대사학회.
최영준, 2002 「지리학」, 『한국사』 35, 국사편찬위원회.

【경제: 역사학 포함】
문용식, 2006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_____, 2007 「조선후기 輿地圖書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환곡운영」,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변주승 · 김정화, 2013 「『여지도서』 전라도편 성격과 물산 · 진공 조항 분석」, 『역사와 실학』 52, 역사실학회.
류장발 외, 2007 「조선시대 4대 지리지에 나타난 꿀의 생산 군현」, 『Journal of Apiculture』 22-1, 한국양봉학회.
서종태, 2006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소순규, 2013 「『世宗實錄』 地理志를 통해 본 朝鮮初 貢物 分定의 실제와 특성」, 『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_____, 2014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송경은, 2012 「영조대 水産物産과 租稅收取의 지역적 특질: 『輿地圖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철성, 2006 「『輿地圖書』에 나타난 田結稅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_____, 2007 「조선후기 輿地圖書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田結稅와 漕運路 연구」,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조영준, 2010 「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輿地圖書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영준, 2011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 · 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역사문화학회.
허흥식, 2002 「『高麗史』地理志에 실린 名所와 山川壇廟와의 關係」,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인물: 역사학 포함】
김동전, 1985 「조선조(16C-18C) 제주지방 縣監의 실태분석: 『濟州 · 大靜 · 旌義邑誌』의 先生案條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 제주학회.
김우철, 2006 「『輿地圖書』 '姓氏'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www.kci.go.kr

김철배, 2011「『완산지』인물조 검토」,『건지인문학』6,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박은경, 1987「高麗後期 鄕吏層의 變動:『世宗實錄』地理志 續姓 分析을 中心으로」,『진단학보』64, 진단학회.
박 주, 2013「조선후기『星山誌』의 편찬과 효자, 열녀」,『한국사상과 문화』69, 한국사상문화학회.
_____, 2014「조선후기 청도『鰲山志』의 편찬과 효자, 열녀」,『한국사상과 문화』74, 한국사상문화학회.
이동희, 1989「『邑誌』「先生案」을 통행 본 전라도 지방의 감사 및 무장, 흥덕현감 명단」,『전라문화논총』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이재두, 2016「조선후기『대구읍지』편찬과 사족의 대응: 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중심으로」,『영남학』2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이정주, 2006「조선 초기 지리지 인물 관련 조목의 계량적 분석」,『역사민속학』23, 한국역사민속학회.
이희권, 1996「『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 연구」,『역사학보』149, 역사학회.
임지환, 1989「전북지역 읍지에 관한 연구: 씨족형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전라문화논총』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행정: 역사학 포함】
이상식, 2006「『輿地圖書』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충청도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임승표, 1993「18, 9世紀 文·武·蔭官邑制:『輿地圖書』와『靑雲譜』의 守令出身 資料分析을 中心으로」,『민족문화』16, 한국고전번역원.
정해득, 1999「정조대 수원이읍과 이후의 변화 양상: 수원지역 '읍지'를 중심으로」,『경기사학』3, 경기사학회.

【군사】
김진우, 2011「여지도서 유형의 읍지를 통한 해미읍성의 문헌적 고찰: 성곽과 성곽 부대시설을 중심으로」,『한국과학예술포럼』9,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유재춘, 1996「朝鮮前期 城郭 硏究:『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중심으로」,『군사』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문】
강지혜, 2014「『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溫陽八景詩 연구」,『동양문화연구』19,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www.kci.go.kr

박병철, 2012「『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遷'계 地名語의 衰退에 관한 硏究」, 『어문연구』 4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유육례, 2011「『용성지』의 여류 누정시 연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8, 한국시가문화학회.
정의석, 1997「新增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와 '題詠'에 대한 考察」,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한국문헌정보학회.

【음악】
배인교, 2005「조선후기 충청도지역 邑誌의 음악 기사 검토: 軍額항과 邑事例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7, 한국국악학회.

【기타】
구현희, 2012「전통지리지 및 읍지를 통해 본 본초약재정보와 지역문화에의 활용: 경상남도 산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김종태, 2004「世宗實錄 地理志에 나타난 中品磁器所에 관한 硏究: 于下里 窯址를 中心으로」, 『Archives of Design Research』 58, 한국디자인학회.
이애련・전혜숙, 2012「『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우리나라산 전통 향 고찰」, 『한복문화』 15-3, 한복문화학회.
최진식, 2003「조선전기의 客館 연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4-3, 한국관광레저학회.

3. 해제 및 연구논저
고석규, 1998『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규장각 편, 1997『강원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1998-2000『경기도읍지』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1993『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3』,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2003-2009『전라도읍지』 1-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01『충청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1993『한국본도서해제속집: 사부4』,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1996-2002『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경기・충청・경상・강원・함경・황해・평안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09『규장각소장 고종시대 공문서 시개정목록(하)』, 태학사.
김기성, 2015「갑오개혁 이후 度支部 파견 屯土監官 연구」,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www.kci.go.kr

김백철, 2014『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태학사.
_____, 2016『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_____,「강릉부지〈奎 10960〉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고성군읍지〈奎 10957〉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간성군읍지〈奎 10972〉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기전)읍지〈奎 12181〉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영남)읍지〈奎 12174〉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인천부읍지〈奎 10713〉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전라북도각군읍지〈奎 10770〉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호남)읍지〈奎 12181〉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호서)읍지〈奎 10767〉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김선경,「충청남도읍지〈奎 10769〉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충청남도읍지〈奎 15235〉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김영인,「칠원군읍지〈想白古 915.152-C438〉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김지영,「충청북도읍지〈奎 10761〉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충청북도읍지〈奎 15236〉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_____,「충청북도각군읍지〈奎 10763〉 상세정보」("지리지 종합정보", 2016.10.30. 검색)
김태웅, 2012『한국근대 지방재정연구: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도서관 편, 1981『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상,「지리지류」, 서울대학교 도서관.
박성준, 2015『대한제국기 공문서 연구』, 아모르문디.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유영익, 2000「갑오경장」,『한국사』40, 국사편찬위원회.
육군군사연구소, 2012『한국군사사9: 근・현대Ⅰ』, 육군본부/경인문화사.

윤해동, 1997「'통감부설치기' 지방제도의 개정과 지방지배정책」,『한국문화』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왕현종, 1995「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_____, 1999「광무양전・지계사업」,『한국사』42, 국사편찬위원회.
이기봉, 2003「광양읍지〈奎 17435〉」『전라도읍지』2,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2003「금산군읍지〈奎 17417〉」『전라도읍지』4,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2003「나주목읍지〈奎 17422〉」『전라도읍지』5, 서울대학교 규장각.
_____, 2003「남원읍지〈奎 17401〉」『전라도읍지』6, 서울대학교 규장각.

www.kci.go.kr

이상찬, 1986「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한국학보』 12-1, 일지사.
이태진, 2000『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장영숙, 2010『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제임스 B. 팔레(이훈상 역), 1993『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신원문화사.
정구복, 2002『한국중세사학사(Ⅱ)』, 경인문화사.
최학삼, 2016「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16-2, 한국조세연구포럼.
한영우, 1981『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www.kci.go.kr

Abstract

An Essay on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Eupji(邑誌) during the Kojong Era

- A Comparison in Bibliography of Kyujanggak Data -

Kim, Paek-chol

Compilation of nationwide topographies was most active during the Kojong era as a single lineage. It was a time when multiple shifts in ruling powers and reformation were made, which were reflected on Eupji(邑誌), during every transitioning period of the local reign system.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de much efforts on orderly classifying the remaining Eupji that exist as separate book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rare to find Paldo(八道)-Eupji in their intact conditions, and since only partial data are conveyed in most cases. Thus, general understanding towards the whole of Eupji compilation project during the Kojong era is necessary, by priority.

In this research,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records is attempted, centrally on bibliographic data. First, examination on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following were conducted as backgrounds of compilation project of nationwide topographies: *Samguk-sagi Chiriji*(三國史記 地理志), *Koryosa Chiriji*(高麗史 地理志), *Sejong-shillok Chiriji*(世宗實錄 地理志), *Dongguk-yeojiji-sungnam*(新增東國輿地勝覽), *Yeoji-doseo*(輿地圖書), *Haedong-yeoji-tongjae*(海東輿地通載), and the like. Second, on the flow of compilation project of the Kojong era, temporal periods were distinguished into Hungsun-Daewongun (興宣大院君) ruling period, Teahan Empire (大韓帝國) era, and Tong-gam politics (統監政治) era. Third, features of bibliographic items were extracted after the restoration of KwangMu Eupji of respective provinces in 1899. A more detailed categorization would also be feasible, if further in-depth research on Eupji is supported based on such foundational review.

Key words : nationwide topographies, KwangMu Eupji in 1899, Kojong, Hungsun-Daewongun, Teahan Empire

www.kci.go.kr